MAR 17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69 1982년3월11일(목) |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 Thursday, March 11,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보수당서 등원거부, 의장은 중립 지켜

연방하원 마비상태

캐나다 민주주의의 산 증거

◇장·소베 하원의장.

(오타와) 연방하원이 야당의원의 일제퇴장으로 일주일째 마비상태에 빠져있다.

야당인 보수당위원들은 지난 4일 예고없이 정부의 에너지 확보법안에 항의, 의석을 박차고나간뒤돌아오지않았다.

여당과 야당은 9일현재 협상할 움직임을 보이지않고 있다.

대신 양측은 이번 의사진행마비상태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상대측에 압력을 주려 하고있다.

일주일간 의회가 마비된 것은 캐나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이같은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는가?

아무도 모른다. 양측이 다 양보와 화해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번사태의 원인은?

지난 4일 오후 토의중 보수당의원들이 아무런 예고없이 휴회할 움직임을 보였다.

의회규칙에 따르면 휴회하려면 투표를 거쳐야한다 의원소집을 알리는 벨이계속 울렸으나 보수당의원들은 등원을 거부했다.

◇정부가 정체상태에 있는가?

결코 그렇지는 않다. 의회가 마비상태에 있어 새법안에 대한 논의만 없을뿐 그외의 모든 법, 규정이나 관계 정부 부처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재정결핍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가?

정부는 이미 4월중까지의 경비를 세금에서 충당토록 의회의 허가를 얻었으므로 당장 그런 사태에 처하지는 않을것이다.

◇야당과 여당은 정확히 무엇을 놓고 대결중인가?

표면적으로는 16개월전 책정된 전국에너지프로그램에 대한 에너지확보법통과를 둘러싸고 여·야가정치대결하고있다.

◇표면상 이유이외의 쟁점은?

보수당은 트루도수상이 점차 독재자로 변해가고있어 그의 독재를 제지할 시기는 바로 이때다고 생각한것이다.

한편 자유당은 보수당이 자기당의 지도자문제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위한 작전으로 의사당을 떠났다고 말한다.

◇이로인한 재정손실은?

금년도에 의회운영을 위해 국민들은 총1억7천4백만달러, 하루50만달러를 지출한다. 여기에는 의원들의 봉급 하루$178 도포함돼있다.

◇하원의장 장·소베여사가 의원들의 등원을 명령할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 그럴 경우 중립적인 의장이 '자유당의 시녀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소베의장은 자유당 소속이다.

뉴해설

단독등원 철야데모 없어

캐나다민주주의의 주춧돌인 연방하원의 의원등원을 알리는 종이 지난 2일이후 계속 울리고 있다.

종이 요란스레 울려대도 의원들은 나타나지를 않고 의회가 일주일 이상 마비에 빠졌으나 과반수 의석을 가진 자유당은 「단독등원―회의강행」이라는 극단적 대립양상은 회피하고있다. 따라서 야당이 여당의 단독등원을 염려해서 의사당 앞서 철야데모를 벌이지도 않았다.

서로가 상대방의 정치적 양식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양측은 현재 타협의 기미가 없으나 조만간 협상은 불가피하다. 결국 양측은 체면을 유지하면서 의회를 정상화 시키는 타협안에 합의할 것이다.

의원들의 등원거부는114년 의정사상 처음이다. 법적으로는 가능했으나 누구도 이를 실천으로 옮긴다는 것은 상상밖의 일이었던 것이다.

보수당은 "의회의 독립성을 보존하고 법안은 대거 일괄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독선적 처사를 막기위해 이같은 등원거부행위가 필요했다"고 주장한다

보수당은 자유당이 내놓은 「에너지 확보법안」은위험스럽고 반 민주적이어서 캐나다민주주의가 시련을 받았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자유당은 "우리야말로 의회제도의 수호자요, 또 에너지법안에 특별한 위험 조항이 없다고 맞대꾸한다.

자유당은 "이번 일은 죠·클락 보수당 당수가 위기에 처한 자기의 지도력 문제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취한 행동"이라고 비난한다.

보수당은 이번 사태에관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의원들이 지역 선거구에 내려가 선전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런 민주제도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등 많은 정치후진국의 선망이 되고 있다.

세계야구대회 12개국, 한국서

(서울9일=연합)제27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가 오는 9월4일부터 18일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거행키로 확정됐다.

9일 대회일정을 발표한 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12개국이 참가, 풀리그를벌여 총 66게임을 치른다.

이 대회 참가국은 한국을 비롯, 호주, 캐나다, 대만, 콜럼비아, 쿠바,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델란드, 미국, 베네즈웰라의 12개국이다.

월말께 본국귀임 조성호 무역관장

토론토한국무역관(KOTRA) 조성호 관장이 본부귀임발령을 받고 월말 안으로 귀국한다.

통상 3년간 해외임지근무제로 되어 있는 복무규정에 따라 만3년의 토론토 근무중 조관장은 한·카무역증진, 교포무역업체에 대한 뒷받침, 한국상품 전시·선전등 공이 컸으며, 한인사회내 각종행사 들에 상품기증등 이바지도 많았다.

지난 11일 월례회에서토론토베타와이즈멘즈클럽(회장 이석현)은 동클럽 멤버로서 YMCA행사때마다 상품기증등 공로가 큰 조씨에게 감사패를 증정한다.

◇플로리다 남쪽휴양지 써프사이드에"캐네디안 환영" 축제가 벌어진다. 축제중의 하나인 미인대회에 출전한 미녀들이 미국과 캐나다 양국 국기를 들고있다.

아! 하마터면…

◇미국 피츠버그의 밥·마샬씨가 자기가 몰던 트랙터·트레일러의 운전대에 앉아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9일 오하이오강의 포트·헨리 다리 난간을 받고 강물속으로 다이빙할 뻔했으나 천만다행으로 부상도 입지 않았다.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 368－0922
R)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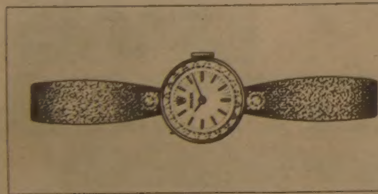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랙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imited
각종주식·유가증권·선물(금·은)등
투 자 상 담
☎361－3428 강 상 욱

ROLEX
NEW FASHION
FOR TIME'S
FACE

로렉스 깜짝 세일



북미의 유일한 한국인의 로렉스 대리점
은하보석상에서 역사상 최초로 시도하는
『로렉스 깜짝세일』 단. 품목은
여자용 수동식금시계에 한함.

ROLEX
AUTHORIZED
ROLEX
SALES
AND
SERVICE

"사십 퍼센트 할인"

★오메가 팔목시계 "재고정리"
➡반액 대매출

기간 : 82년3월 5일부터
3월25일까지

은하보석상
620A BLOOR ST. W
전화 : 534－9977 534－7791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쌀 도입 둘러싼 $600만뇌물설

조달청부인, 제2의 박동선사건

(서울 9일=연합)김주호 한국조달청장은 9일 2개의 미국쌀수출회사가 자신을 포함한 한국관리들에 약 6백만달러의 뇌물을 주어 쌀값을 올리려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이 발표에 앞서 AP통신은 샌프란시스코발 기사에서 미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독과점금지법(앤티·트러스트) 소송을 인용, 한국인들의 뇌물에 관해 보도했었다.

김조달청장은 AP 통신 기사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일부 미국쌀수출업자들의 과잉경쟁으로 일어난 잡음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81년 1월 20만톤의 현미를 샌프란시스코의 태평양정미소로부터 톤당 449 달러로 계약, 작년도에 실제 도입한 것은 13만톤뿐이었다. 김청장은 태평양정미소 나머지분은 81년도산의 보다 싼 쌀로 대치 82년도에 선적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청장은 한국이 입찰을 받을 당시 미국시장의 쌀값은 톤당 48 7달러에서 548 달러까지였으나 PIRM회사와 449 달러로 낙찰했으나 선적할 즈음 수확이 좋아 국제시장에서 쌀값이 톤당 350 달러로 떨어져, 13만톤만 선적 했다고 말했다.

야당인 민한당은 9일만약 6백만달러 뇌물수수사건이 사실일 경우 이는 천만 한국 농민들과 한국정부에 누를 끼치는 사건으로, 의회는 조속히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진상을 조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70년대 중반 미국 정계를 뒤흔들었던 박동선사건은 쌀 수입업자인 박씨가 쌀수입으로 폭리를 취해미국회의원들에서 뇌물을 준 사건이었다.

미·중공관계악화

대만무기판매 중지않으면 단교고려

중공은 대만문제로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위기에 도달했다고 2일 주장했다.

중공 관영 신화사 통신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가 계속될 경우 중공은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할 의향이 있다고 보도하고 중공당국은 이를 막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화사통신의 이같은 보도는 미국과 중공과의 외교정상화의 길을 열었던 상해커뮤니케 10주년에 관한 레건 대통령과 조자양 중공수상간의 서한교신과 때를 같이 했는데 미국과 중공과의 관계악화로 상해커뮤니케 10주년 기념행사는 거행되지 않았다.

샌드라·김양입상 토론토지역 2위

키와니스 경연대회및 로열·콘서버토리 경연대회 입상등 다채로운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샌드라·김(18세·선민)양이 온타리오주정부 피아노부문 예술경연대회의 토론토 지구대표선발 시니어부에서 2위를차지했다.

수년간 수상경력으로 교민지에 보도돼 이름이 널리 알려진 샌드라·김양은 4세부터 피아노를 배우기시작, 현재 노스·욕 토론토고등학교 11학년에 재학중인 유망주로 블루어거리에서 클링턴·하우스를 경영하는 김영규씨의 장녀이다.

샌드라 입상 연주곡목은 모짜르트의 "Ah Vous Dirais-Jemaman Variations"였다.

에트닉그룹 교육문제 심각

소수민의 권리 존중돼야

토론토의 학교는 학생인구구성의 급격한 변화에적응하는데 실패했다고 에트닉 그룹의 학부형들이 말한다.

올해 토론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약60%는 모국어가 영어나 불어가 아니다. 그러나 행정관, 교장선생및 교과서는 계속 전통적인 백인 중산층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학부형들은 말한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6 일 토론토에서 1,300여명이참석한 학부형회의에서 거론되었다.

이태리 문화와 교육을위한 캐네디언센터의 간부인 알베르토·디·지오반니는인터뷰에서 각종문화및 에트닉 그룹들이 학교제도 안에서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보호하기 위한 문제에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사회는 옛날50년대와같이 단순하지 않으며, 소수민족 그룹은 더 이상 2등시민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으며, 그렇게 되지도 않을것이라고 힘주어말한다. 그는 이러한때 각이민족 그룹의 권리가 존중될수 있도록 학교가 그들의 제도를 신속히 변화시킬수 있느냐가 중요문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자마이카—캐네디안협회 회장인 루퍼트·제임스는 학교가 학생인구의 급변하는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지못하고 있으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현재 백인 중산층 아동들의 등록은 감소하고있는 반면 흑인아동들은 늘고 있는 추세다.

인종관계 분과 토의에서 소수민족 학부형들은 그들의 자녀가 캐나다 사회에 적응하는데 걸림돌이되는 여러가지 사례를 열거하였다. 실예로 어느학부형은흑인아동이 크리스마스 장식용으로 검은천사를 그렸을때 선생이 이 아동의 심리를 이해못하고 면박을 준 일을 상기시켰다.

이날 회의는 또한 제3국어가 정규수업에 포함될것을 촉구하는 결정에 찬성했다. 토론토 교육위원회는 현재 제3국어(모국어) 강습을 정규수업후 실시하고있다.

머리 빡빡깎은 모습의 레건·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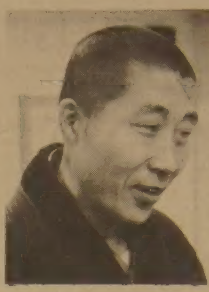
◆대머리 커플—레건의 예산삭감을 풍자, 낸시와 레건의 머리를 홀딱 깎아버린 사진의 포스트카드가 인기리에 판매중이다. 지난해엔 에리자베스 여왕 사진에 얼굴만 낸시로 바꿔 넣은「낸시여왕」포스트카드가 인기를 얻어 1백만장가까이 팔리기도. 자신의 대머리 사진을 본 낸시여사는 폭소를 터뜨렸다고 낸시의 미용사는 전했다.

교 민 동 정

◆최규홀=본격적인 한국 문고집판매를 시작, 주문받고 배달해 주는 일에 분주하다. 현재 가진 책은광복20년 25권, 한국 인물사 10권, 삼국지 6권, 한국의가정요리 4권, 토지(박경리著) 6권및 단행본으로 대한 한(옥편) 사전, 가정종합 병원등이 있다. 전화는 690—2216

눈오는 날에 ⑤ 한국인을 생각한다

김 삼 우(선련사 주지)



◇김삼우 씨

민속행사가 끝나고 한국신도님들이 만들어온 한국음식과 캐나다인 신도님들이 만들어온 각종음식들이 전시되고 시식에 들어갔다. 모두 채식이었는데 종류가 그렇게 다양할수 없고, 맛 또한 특이하여 사람들을즐겁게 하였다.

이어 캐나다인 신도들이 주동이 되어 망년회같은여흥이 시작되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자 신명이 나는지 바지저고리를 입은 영감님이 뛰쳐나와 캐나다인들에 섞여 둥실둥실 춤을 춘다. 시골영감의 춤인데 자기를 잊어버리고 추는춤이라서 조금도 어색한데가 없다. 전신에 번지는 웃음속에 세상의 일만근심을한꺼번에 잊어버린 한국인이 멋과흥을 나누며 서양사람과 춤을추고 있었다. 그러나 나를 느끼게 한것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민속문화 행사로 밖에서 모셔온 한국인 한분은 서양사람들이 열심히 불교를 믿고, 또 하루저녁 이렇게 한국인과 서양사람이 격의없이 한국불교문화를 통하여 만나게된 것이 무척 감격스러 웠던지 자리에서 걸어나와즉석연설을 하시는것이 아닌가. 내용인즉,

자기가 한국에 있었을때 큰 절에 다녔는데, 캐나다에와서 지금 7년째 교회에 나가고있다. 오늘저녁 와서 불교를 열심히믿는 서양신도 여러분을 뵈오니 참으로 감회가 깊고, 나 자신불교신도인지, 기독교신자인지 어리둥절 해진다. 어쨋든 여러분께서 불교를 열심히 실천, 부처님 진리를 서양에 전해주기 바란다고 말을 맺음으로써, 서양불교신도들로부터 박수갈채 를 받고, 그날저녁의 정신적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리고 어떤분은 십여년전 학생때배운「찬불가」를 나와 부르기도 하였다. 자기안에 숨어있던 한국인이 살아나오는 순간이었다.

이튿날 24일 일요일이었다. 취재팀이 이틀에 걸쳐 촬영한 것을 중요한 대목만 골라 자기네들이 가져온 텔레비젼 수상기에 방영하여 보여주었다. 천연색위에 펼쳐진 한복의 물결, 음향효과 위에 나타난 창과 장고소리, 그리고 거기에 어울린 춤사위, 한국인의 신과 멋과 흥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대견스러웠다. 나는 조국을 떠난지 참으로 오래간만에 한국인의 뿌리, 백성들의 즐거움, 그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한국인의 심정은 역시공간이었다. 마음의 공간, 곧 여유와 여백에서 자기자신을 있는 그대로 발산하는 놀이에서 한국인은 행복을 느낀다. 나는 그날저녁 잔치와 놀이에 동참하여 주신 분과 사정으로 동참할 수 없었던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싶다.

누가 권한다고 한국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한국인은 신이 나야 움직인다. 한국인은 신명이 나야 멋이 있고 흥이 난다. 그것이 한국인의 소박한마음의 공간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물질문명의 혜택 가운데서 시간과 경쟁 속에서 마음의 공간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시간이 우리의 공간을 지배하고, 이 시간속에 우리는 삶을 빼앗기고 만것이다. 그래서 멋이 없고 흥이 나지 않는다. 즐거워야할 인생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짜증스럽기만 하다. 그리하여 느는 것은 스트레스 뿐이다. 이제 많은사람에게 있어 살아가는 것이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금년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왔다. 우리는 조국에서 태어나 지금 북미에 와서 살고 있다. 습관의 다름, 언어의 장벽, 그리고 의식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인 갈등을 우리 모두는 안고 있고, 그위에 거대한물질문명의 톱니바퀴에 걸려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딘지 조금씩 아프다.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 위에 성질이 열열하고 흥분하기 쉬운데다 욕심이 많고 극성스러운 데가 있다. 자녀교육에 극성스럽고 종교에 극성스럽고 돈을 버는데극성스럽다. 그러다 보면 말할 것도 없이 정신 질환이 늘어나서 충격뉴스를 대하게 되는 것이다.

L.A.동양계 가정문제상담중에서 한인들의 문제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른바 K.S.마크를 지니고 있는 최고 지성인들이 권총을 휘둘러 아내를 죽이는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거침없이 해 내고 있다. 그리고 자기를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분 들도 적지않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인생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잃고, 마음의 평화와 공간의식을 잃어온 것이다. 지식만 가지고 우리는 자기자신을 구제할 수 없다. 그리고 물질문명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 돈방석에 앉아있는 돼지처럼 우리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우리는 지금 살기 위해, 참으로 살기 위하여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가라 앉힐 때가 온 것이다. 그리고 차분히 앉아 참선을 하여 동양의 예지를 살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한국사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그것은 내가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편견 때문이다. 눈 오는 날에한국인의 아름다운 마음, 그 정신적 공간과 원망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 이글을 써보았다.

(끝)

◇살인방조자가 되지말라—미국의 엘살바도르 개입을 항의하는 데모대들이 무시무시한 해골가면을 쓰고 3일 레건대통령이 연설하는 LA뮤지센터앞에서 시위를 벌이고있다. 〈LA—AP〉

바른자세 체조

손쉬운 실내 개인운동

주위 사람들은 자세히살펴보면 선 자세가 곧바른 사람이 드물고, 어깨가 안으로 둥글게 휘거나 새앞가슴을 가진사람이 너무 많은데 놀랄 것이다.

이같은 나쁜 자세는 정상적인 근육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비록 근육발달에 필요한 운동을 한다하여도 나쁜 자세를 교정하지않는한 정상적인 근육발달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고 흔히 군인한테서 볼수 있는 배를 당기고 가슴을 내미는 식의 자세가 좋은 자세라고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런 자세는 부자연스럽다.

좋은 자세를 갖지 못하면 척추디스크같은 병에걸리기 쉽고, 외양상 남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며,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

자세교정을 위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손쉬운 과정을 우선 권한다. 일어나 양어깨를 서로 맞닿을 정도로 가능한한 앞으로당긴다. 다음 같은 식으로뒤로 당긴다. 그 다음으로는 어깨를 위로 당겨 귀에까지 닿게 한다. 이같은 자세에서 가슴근육을 사용, 어깨를 내린다. 이때 등배근육을 사용, 어깨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한다.

이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안정되고 곧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 말고도 바른 자세를 갖는데 도움을 주는 최적의 율동은「손굽혀 펴기」(push-up)이다.

◇손굽혀 펴기 : 얼굴은 마루를 보게 하고, 다리는 곧바르게 펴 발가락에 무게를 의지한다. 손은 편편히 펴 마루바닥에 놓는다. 이때 손가락은 앞쪽으로 향하며, 팔은 어깨넓이 정도로 벌린다. 손굽혀 펴기를 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은자세를 발끝부터 머리까지될 수 있는한 일직선을 유지해야하며, 천천히 몸을 내렸다 올렸다 해야 한다.

이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되풀이한다. 이상적으로는 가슴이 마루에 닿을 정도로 팔을 굽혀야한다.

손굽혀 펴기를 하루 1회 25번정도 하면 자세에 관한한 안심할 수 있다. 익숙해지면 하루에 2~3회 하는 것이 좋다.

◇팔꿈치 밀기(Elbow push) : 서있는 자세에서 오른팔꿈치를 왼손으로 왼팔꿈치는 오른손으로 쥔다. 이런 자세로 6초동안 팔을 될수있는한 힘껏 안쪽으로 ,민 다음 잠깐 쉰다. 이같은 운동을 6 번 계속 반복한다.

◇손바닥 밀기(Palmpush) : 발을 마루에 편편히 대고 등은 곧게 한 자세로 의자에 앉는다. 가슴 높이로팔이 오게 하고 손바닥을 겹친다. 이때 손가락은 위를 향하게 한다. 이런 자세로 6초동안 손바닥을 민 다음 잠깐 쉰다. 다음은 손가락을 밑으로 향하게 한후 같은 동작을 6초동안계속한다. 이같은 운동을 6번 계속 반복한다.

◇목당기기와 밀기(Neck pull and push) : 머리뒤로 손을 깍지낀 다음 팔로 힘껏 머리를 당기는 동시 목은 이에 저항한다. 6초동안 유지한 다음 잠깐 쉰다. 이같은 동작을 6번 계속한다. 다음은 손을 턱밑에 받쳐고, 6초동안 힘껏 위로 민다. 이같은 동작을 6번 계속한다.

◇책상밀기(Table push) : 똑바로 앉은 자세에서 양손을 책상 위에 갖다 놓는다. 6초동안 책상을 힘껏 민다. 잠시 쉰 다음 다시 6번 계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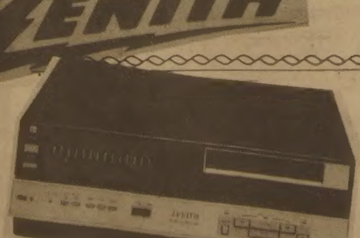
이같은 운동을 모두 마치면 일어나 주위를 걸어보라. 당당하고 상쾌하며 자시감을 얻을 것이다.

= 정 정 =

4일자 1면「최홍희씨 관련부인」기사중 천우여행사를 금강산관광단 모집처로 기재한 것은 잘못이음기 정정합니다. 금강산 관광단은「귀향회」라는 정체가 불분명한 단체가 모집하고 천우여행사는 항공표를 팔 뿐입니다.

봄철스페샬대매출

ZEN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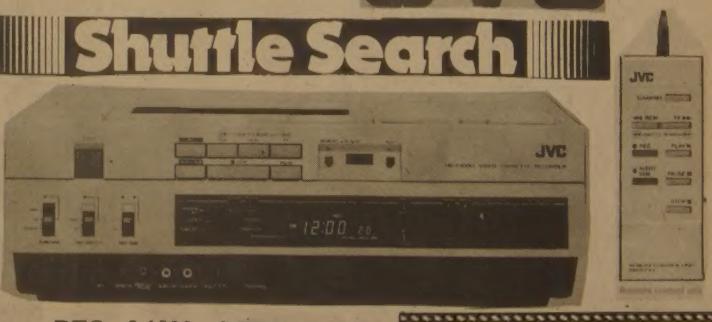


REG. $1495 SPEC. $1095

비데오는 역시 제니스
(BETA), T.V.C (VHS)
입니다

* 14DAYS PROGRAM
(14일간 녹음가능)
* HEAD 4개
* REMOTE CONTROL 포함

JVC
Shuttle Search



REG. $1599 SPEC. $1195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FINCH AVE W. WESTON HWY 401 HWY 400
745—5555

아카데미 T.V.&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SCARBOROUGH, ONTARIO
282—2820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다이아몬드 고르는 요령

색도, 무게, 투명도, 절단에 따라 가격달라

보석중의 보석 다이아몬드는 그 신비스러운 광채와 단단함으로 많은사람, 특히 여성들을 매혹시키고 있다. 세계적인 재벌의 부인으로부터 일개 범부의아내까지 다이아몬드를 소지하지 않은여성은 드물정도다.

이와같이 가장많은 총애를받는 다이아몬드는 그가격도 천차만별이다.

다이아몬드 구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고객은역시 결혼을앞둔 남녀다. 그러나이들 대부분은 다이아몬드가 어떤식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어떤 다이아몬드가 좋은것인가 하는데 무지하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요소를알면 다이아몬드 구매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이아몬드의 등급은 캐럿무게, 투명도, 색도와 절단으로 결정된다.

캐럿(Carat)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첫째 무게로 결정된다.(1캐럿=2그램)1캐럿은 100 포인트 로 표시된다. 따라서 1 1/2캐럿의 다이아몬드 무게는 150포인트로 표시된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다이아몬드가 희귀하기 때문에 무게가 증가함에따라 캐럿당 가격이 정비례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2캐럿 다이아몬드는 동질의 1캐럿 다이아몬드보다 4배나 비싸다.

◇ 다이아몬드

투명도(Clarity)

가격을 결정하는 또하나의 중요요소는 투명도다. 투명한 다이아몬드 일수록 가격이 높아진다.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은 모든 등급을 10단계로 나눈다. 다음의 용어는 투명도를 나타낸다.

IF－내면에 흠이 없음.
F－표면에 흠이 없음.
VVS－아주 극소량의이물질 함유.
VS－ 소량의 이물질 함유.
SI－소량의 이물질 함유
I－부적격, 눈으로 감지할 수 있음.

내면에 흠집이 없는 다이아몬드는 아주 희귀해아주 최상의 색도(D)를 갖추었을때 캐럿당 $25,000~$30,000를 홋가한다.

색 도(Colour)

색이 없을수록 가치가 커진다. 가장 흔히 쓰이는색도시스템은 알파벳 순서에 의한다. "D"가 가장 순도높고 맑은 색이며 "O"까지 순도가 떨어지며, P부터 는 색도가 좋지 않아 공업용으로 사용된다. "F"~"K"는 가장 흔히 보석에 사용된다. "D"~"E"는 큰 다이아몬드에 매우 희귀해주로 투자가들이나 보석수집가들이 사들인다.

절 단(Cut)

"절단"이라는 용어에는 두가지 의미가 내포돼있다.

다이아몬드 모양중 가장 유행하는것은 브릴런트(brilliant)컷이다. 브릴런트 컷은 57면으로, 이상적으로 절단세공된 컷은 가장 정교하게 빛을 반사, 이름 그대로 찬란한광휘를 투영한다.

둘째로 "절단"은 선택된 모양의 다이아몬드의 대칭성을 의미한다. 이 정의는 전적으로 다이아몬드의 면을 분할하는 다이아몬드세공사의 기술에 달려 있다. 절단면이 정교하고 대칭적일수록 더욱 찬란한 광채가 나며, 값도 올라간다.

남자강간피해자 많아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기도 하기도

강간을 당했다거나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의례 여성이 당한것으로 생각하게되나 최근 많은 소년들과 남자 성인도 피해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과 의사, 카운슬러등에 의하면 남성들도 여성과같이 휴유증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굴욕을 받으나 괴롭힘을 당한것을 시인하기 싫어하고 도움을 청하길 싫어한다는 것이다.

어린 소년들은 소녀들보다 첫번째 강간을 당한 후에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뉴욕 대학 메디칼 센터의 교수이자 벨뷰 병원의 어린이 피해 전담반의 책임자인 맥휴씨는 『남성이 성적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일반인들 생각하는 것보다 많으나 우리 사회에서 이를 논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맥휴씨는 남자들이 성적 괴롭힘을 당하는 사건은 전체 강간 사건의 약20%정도가 될것으로 추정하나 『남성들의 경우 소수의 피해만 보고돼 정확한 통계를 낼수 없다』고 설명한다.

맥휴씨는 『여성들을 강간당한 것을 자진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성 피해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사회는 여성이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증가했다』고 피력하고 있다.

맥휴씨는 『우리 사회에는 남성들에게 강간 같은 사건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믿고있어 남성들은 자신이 빈약하다는 낙인이 찍힐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면서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피해자를 꾸짖는다』고 밝힌다.

남성들이 성적 괴롭힘을 당하는 특수한 경우는 급습을 받는 경우, 강도, 청소년 깡패들이 굴욕을 주기위해 강간하는 경우등이다.

맥휴씨는 또 청소년 유치소와 형무소에서 남성과 여성들 강간 당한 여러 케이스를 상담했다고 말한다.

남성을 강간하는 경우는 대부분 남자들이 에외적인 것도 있다.

맨하탄에 있는 빈센트 병원의 청소년 성적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선드스트롬씨는 많은 소년들을 치료 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어머니와 근친성교를 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근친 성교의 피해자가 된 남성이나 여성들은 성적인 불의의 관계를 친밀함 또는 믿음과 혼동을 한다』고 설명한다.

선드스트롬씨는 또 『근친상간을 돌보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이며 심리적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서 피해를 당한것보다 더 오래 간다』고 말한다.

빈센트 병원의 울렌돌프씨는 남성 강간 피해자의 증세는 여성 피해자와 같다고 설명하면서 『강간충격으로 심한 압박감을갖게 되는데 이는 남여 모두 같다』고 한다.

그는 또 『피해자들은 완전히 활기를 잃으며 계속해서 두려움을 갖게되고심지어 악몽까지 꾼다』고 말한다

빈센트 병원의 경우 작년11월에 상담한 피해자는 73명인데 이중 6명이 남자였다는 것.

이병원에는 15명의 남성 카운셀러가 있는데 남성 피해자들은 가끔여성과 상담하길 원하는데 그이유는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비난을 덜하기 때문.

벨뷰 병원의 맥휴씨는 『청소년중 일부는 그들이 당한 일에 매우 낙담하여 자살을 시도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들의 육체공세에 눈이 동그레진 순진파총각

월남전 듣는 새벽 "성령 만났다"고

존슨 전 대통령 전기에서 밝혀

린든 B 존슨 전 미국 대통령은 월남전 당시 백악관에서 성령의 형태로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존슨씨에 대한 전기에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존슨씨에 관한 전기「정치가」가 뉴욕「새터데이 리뷰」 최신호에 게재됨으로써 밝혀졌는데 이책은 곧 출간될 예정이다.

「새터데이 리뷰」지가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월남전이 치열했을 당시 존슨 대통령이 어느 외교관에게 신을 믿느냐고 물어 그가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는데 존슨 대통령은 월남전에 관한 소식을 전해들은 어느날 새벽 성령의 형태로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다고 그 외교관에게 얘기 했다고 한다.

海 外 걸 작 漫 畵

『뭘 하는지 난 알아요. 나무에 이름을 새기고 있죠。』
"I'll bet I know what you're doing—you're carving our initials in the tree."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 표 나옥녀
한국관

三國志 330

글·高羽榮·그림

한국일보
광 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뉴컬션 다량 입하!!
LONDON FOG®
springs into the 8 s with fash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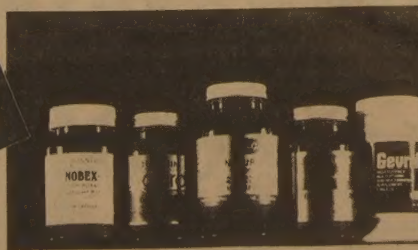
남·잠바
Reg. $129.00→Sale $89.00
여·잠바
Reg. $69.00→Sale $3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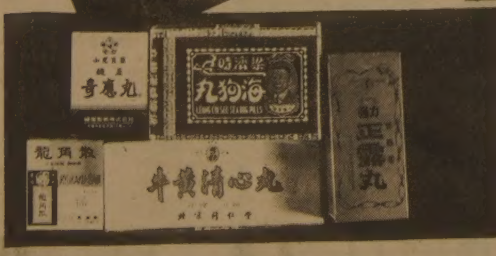
남·녀용
Reg. $28.00
→Sale $14.00

알트·스웨드
(물세무·남녀용)
Reg. $549.00—Sale $399.00

※남자세무잠바·····Reg. $149.00→ Sale $99.00

캐나다 지정 판매점
WORLD of NATURE
NATURAL VITAMIN HEADQUARTERS
비타민·한약





⊕품 목
◎비타민류 : 로얄·제리, 간장보호제
종합비타민, 게브랄티
비타민E, 간 유,
무좀약, 어린이비타민등.
◎한약류 : 당료병 특효약(한약비방)
우황청심환, 녹 용,
십전대보탕, 웅 담(캐나다산)
정로환, 편자환, 기응환,
용각산, 신경통 특효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交通·暴行등의 傷害진단서 일반診斷書로 代替토록

發給비용 20倍비싸 큰負擔

일부病院 最高 15만원까지

費用싼 일반용도 搜査지장없다 建議 검찰

의사證人소환때 收入손실비용 加算 병원

서울地檢(檢事長 丁海昌)은 5일 교통사고나 폭행, 상해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상해진단서」의 값이 너무 비싸 대부분이 서민인 이들피해자들에게 큰부담을 주고있다고 판단, 이를 「일반진단서」로 대치할수 있도록 할것을 大檢에 건의했다. 서울지검 분석에따르면 전국에서 1년간 업무상 과실치상사건(교통사고포함)이나 상해·폭행사건의 피해자가 사건처리나 고소, 고발을 위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15만여건에 달하고 그 비용만도 1백억원이 넘으며 상해진단서의 값도 「일반진단서」의 값 5천원에 비해 평균 15~20배에 가까운 8만원~10만원선에 이르고있어 심한경우에는 15만원까지 받는 병원도 있는 실정이라는것.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는 기재내용면에서 약간의차이는 있는데, 일반진단서가 ▲병명▲발병연월일▲향후치료에 대한 소견(치료기간) 등만을 기재하는데 비해 상해진단서는 일반진단서 기재내용외에▲상해의 부위및 정도▲통상활동의 가능여부▲상해에 대한 소견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발급하는 것이다.

이처럼 발급비용에 큰차이가 나는것에대해 의사들은▲질병의원인이 상해로 인한것일때는 의료법시행규칙상 상해진단서로 발급해야하고▲상해진단서를 발급하면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언하기위해 소환당하는일이 있기때문에 그비용을 가산해 상해진단서의 값이 비싸졌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검찰은 법의 규정상 그렇게 된것일뿐 사건처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것은 병명과 치료기간으로 충분하기때문에 일반진단서를 사용해도 수사에 별 지장이 없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검찰은 검사가 사건의 정확한 처리를 위해 진단서발급의사를 소환하는 경우는 1년에 한번있을까말까한 정도로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대한의약협회의 한관계자는 『일년에 단 한번 소환된다 해도 몇시간 심지어는 하루종일 걸릴때도 있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연간 수십건씩의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단1번 있을지 모르는 소환의 경우를 계산, 엄청난 비용을 받아내는것은 이해가 가지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검찰은 지난해부터 이미 참고인 우편진술제도를 실시하고 있기때문에 사실상 진단서를발급한 의사를 소환하는일은거의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관계자들도 『진단서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재판부가 의사를증인으로 소환하는 일은 별로 없으며 부른다해도 우선적으로 증언청취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있다.

한편 서울地檢의 건의를 받은 大檢은 보사부등관계기관과 곧 협의를갖기로했다.

해설 ······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싸움을했을때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건처리와 피해보상을 받기위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한다. 이럴때면 으레 의사들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내세워 값비싼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준다.

이같은 의사들의 관행적인 처사에 대해 검사들은 의료법시행규칙상의 규정때문이 아니라 발급후에 일어날지도 모를 수사기관의 소환에 따르는 수입손실을 사전에 막기위한 방편으로 상해진단서를 비싼값에 떼준다고 보고 있다.

여하튼 피해자들은 상해정도를 조금이라도 늘려 진단서를 떼려는 경향이 짙고 그래야만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충분히 받을수 있다는 심리적 현상때문에 일단피해를 보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다.

그러나 서민들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에게는 진단서발급비용이 힘에버찬게 현실인것이다.

醫療法규칙등 고쳐야

상해진단서는 수사상 또는 의료법시행규칙상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하지만 검사들은 대부분 사건처리를위해 진술등을 필요가있으면 상해·일반진단서 구별없이 발급의사를 소환하게 된다. 따라서 상해진단서라고해서 비용을10배이상씩 많이받는다는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문제는 일반진단서로도 사건처리가 충분한데 의료법 시행규칙은 상해로인한 질병에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도록한 규정을 고수하는 관계부서의 폐쇄성이다.

대검은 이같은모순을 없애기위해 법무부를통해 보사부와협의,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의료수가 조정작업을통해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을 저렴하게낮추는방법등 두가지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것으로 알려졌다. 【崔奎植기자】

"外債 국민1人當 60萬원꼴"

國會 질문·답변 "景氣회복 下半期엔 확산"

국회 본회의는 5일하오經濟 문제 전반에관해 對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廉吉正 李慈憲 高貴男(이상 民正)李秉根 洪性杓(이상民韓) 李鍾根(국민) 李洙鍾의원(無)등 7명이나서 景氣회복과물가, 外債稅制수출농촌문제 重化學 공업대책 국토개발등각분야에걸쳐문젯점을 지적하고 정부의대책을추궁했다.

"公共요금 現水準 凍結하라"

이날 의원들은 外債문제를 집중추궁, 『현外債3백45억달러는 25조원으로 국민1인당60만원에 해당하며 外債의 累積은 결국 국민소득의 해외流出을 가져오고 국민경제의 침체, 후퇴와 直結된다』면서 『우리의 國防費와 맞먹는 外債利子를 매년갚고도 성장과 안정이 가능한가』고 물었다.

의원은 또 外債문제와 관련, ▲86년까지 당초 도입을 계획했던 外債 6백억달러를 5백억달러로 축소조정하고도 계획에 차질이 없는가 ▲금년도 소요外債 75억달러의조달책 ▲惡性단기外債의 長期外債로 전환책등을 물으면서 外債의 합리적 관리방안을추궁했다.

이들은 물가문제에대해『物價를 억제하려면 공공요금을 현수준에서 凍結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不況이 너무길어서 상품을만들어도 팔리지않아 原價조차못받고 出血판매를하다보니 물가가 안오르는것』이라고 跛行性을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또 租稅문제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개정시기를 늦추는이유 ▲內務部와 財務部로 二元化되어있는 租稅立案제도의 一元化 ▲종합특별소비세율의 引下 ▲종합소득세 법인세 附加稅 상속세의 稅率과 稅源배양과의상관관계 ▲租稅의 景氣對策的기능活用 ▲稅制심의기구의신설등에 관해 물었다.

이들은 농촌문제에 대해서도 外米의 過多도입에대한 책임을추궁하면서 쇠고기등 농축산물의 수입을 抑制하라고 촉구한뒤 ▲농촌인구의 적정減少수준 ▲糧特및 肥特의 赤字해소방안 ▲농산물가격 豫示制 ▲農地稅의 통합과 稅率조정 ▲農外所得증대 ▲農協조합장 直選등을 따졌다.

이들은 그밖에 철도사업의 公社化와 서울—大田間 초고속전철의 착공보류등을 요구하고 ▲그린벨트관리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방침 ▲주택문제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대책 ▲장기적인 수송체제확립방안 ▲88올림픽 관광진흥계획 ▲외국항공기의 以遠權허용여부 ▲遺傳工學의 연구현황등을 물었다.

특히 廉吉正의원(民正)은 국토개발계획의 총체적인 청사진을 밝힐것을 요구한뒤 『77년에 발표돼 커다란 충격파를 던졌던 행정수도 遷都계획은 아직도 유효한지, 중단·보류상태인지 또는 영원히 무효인지를 밝히라』고 그 행방을 추궁하고 『도시행정관리의 혁신및 도시토지제도의 재검토등에 대한 구상은 무엇이며 개발계획이 온국민에게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還收제도를 조속히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李慈憲의원(民正)은 『종합무역상사의 異質的인 肥大현상으로 국민경제가 몇개의 財閥그룹에 從屬되는 獨占體制가 深化된다』면서 그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할것을 촉구했다.

李秦模의원(국민)은 『국제原油값과 原資材값의 下落, 환율안정, 金利인하, 정부의 재정긴축등으로 금년들어 물가상승요인이 전혀없기 때문에 금년도물가를 10%아닌 5%이하로 인하조정하고 지난해 정기국회가끝난뒤 인상한 각종 공공요금및 물가를 原點으로 인하,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劉彰順총리는 답변에서『올들어 수출증가세가 다소鈍化되고 경기회복세도 기대에못미치고있다』고 말했다.

"86年까지 輸入自由化"

그는『그러나 3월이후는 1·14경기회복조치에 따른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전망으로서 豊作에의한 농촌구매력의 증가, 88서울 올림픽유치, 金利引下에의한 민간투자심리의 작용으로 경기회복은 하반기이후 확산될기미를 보이고있으며 정부측도 1·14조치의 효과가 가져오는경제효과를 면밀히 분석,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경기회복을위해서 결코 충격적인 방법을 택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劉총리는 또 外債문제에대해『이의 해결을위해 5차5개년계획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지는 않겠다. 그대신 外債규모를 축소하기위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나 현재 그방안을 예의연구중』이라고밝혔다. 그는『우리의 外債는 3백25억달러에 이르며 이중 中·長期外債가 2백8억달러, 1년미만의 단기債가 1백17억달러』라고 말했다.

金埈成부총리는『회복세에있는 경기의 加速化를 위해 정부施工공사를 早期집행할 생각』이라면서 『금년중 일반회계에서 1조2천9백23억원, 특별회계 2천2백47억원등 총1조6천7백94억원을 早期집행하겠으며 이중 1·4분기에 61.3%를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8%에서 7%로 낮춘데대해 『당초 목표로했던 쌀생산량이 3천8백70만석에서 3천7백만석으로, 주택건설이 27만호에서 20만호로, 수출이 253억달러에서 247억달러로, 도매물가가 13%에서 10%로 주는등 여러가지 지표가 조정됐기때문에 修正했다』며 앞으로 물가안정에 최대역점을두고 경제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金부총리는『83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에 비해 규모증가가 되지않도록 최대한의 억제를 약속한다』고 말하고 『民間主導型경제발전을위해 공정거래제도를 早期정착시키고 수입을 開放, 86년까지 輸入自律化비율을 선진국수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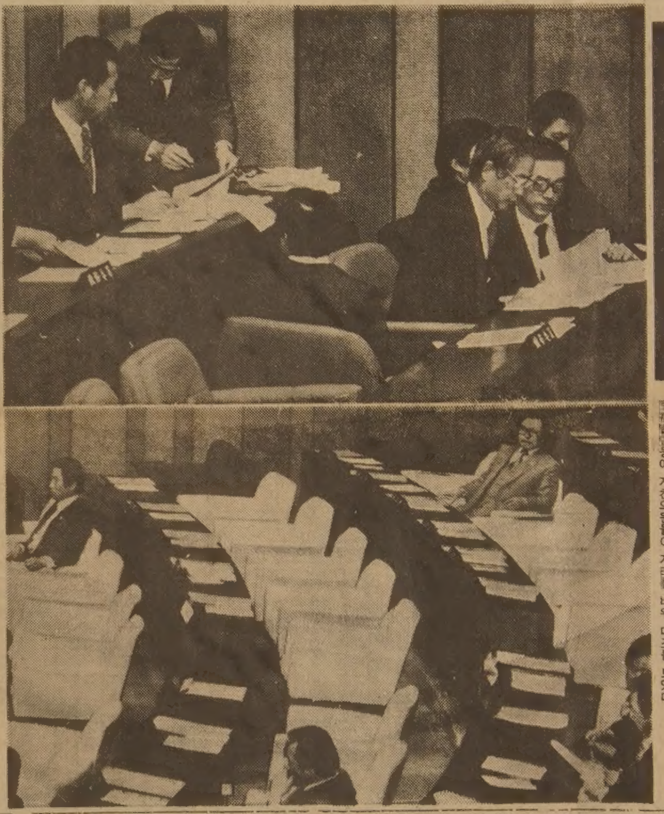
羅雄培재무장관은『우리나라 外債총액 3백25억달러중 單期性외채는 1백17억달러로 36%에달하는데 금년에는 이폭을 줄이겠다』며『外債는 상환부담률도 중요하지만 규모도 경제규모에 맞아야하기때문에 86년까지 外債규모를 6백45억달러로 축소하기위한 여건조성에 노력중』이라고밝혔다.

경쟁력없는 輸出業 필요땐 合理化조치

徐商工 國會답변

徐錫俊상공장관은5일국회에서『수출경쟁력이 약한 수출業體조정은 신중을 기해야하나 경쟁력없는 業體에대해 필요하다면 합리화조치를 취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이어『중소기업육성을위해 금년중 중소기업장기육성계획을 마련하겠으며 이계획에는 중소기업의 영역과역할을 설정하고 장기적입장에서의 지원제도를 체계화하겠다』면서『금년중으로 중소기업종합육성을위해 5백억원의 자금을 책정하고있다』고 덧붙였다.



忙과閑의 議政

◇與野의원 7명이 나서 경제문제를 따진 국회본회의장. 의원들의 질문에 국무위원석의 金埈成부총리(사진㊤의㊧)·高建 농수산부장관(사진㊤의㊨)등 각료들은 답변준비에 바쁜모습이었으나 의원석(사진㊦)은 지친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대조를 보였다.

北傀, 板門店서 잇단 挑發

投石·욕설등 분위기 험악

유엔側 中止촉구

板門店공동경비구역내에서 최근 북괴경비병들이 의도적으로 각종도발을 잇달아벌이고있어 분위기가 크게 긴장되고있다.

5일 유엔군사령부에 의하면 板門店공동경비구역에 나와있는 북괴병들은 최근유엔군경비병초소에 돌을 던지고 욕설을하는가하면 남한쪽에서板門店을찾아온관광객에게까지욕설을퍼붓고있다는것.

북괴 경비병들은 또 도끼만행사건이후 넘지못하게돼있는 군사분계선을 일부러넘는등 유엔군측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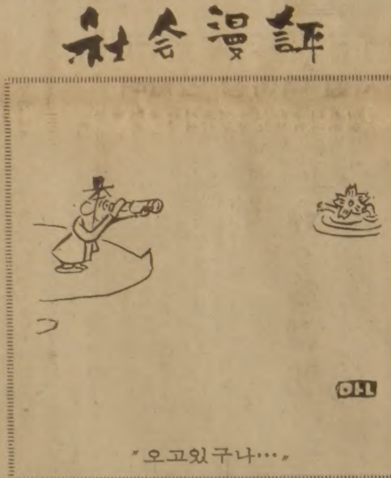
지난달 25일에는 북괴경비병들이 板門店본회의장 부근의 군사분계선 주변에 낙엽을 긁어모아 놓고 일부러 불을 질러 불길이 남쪽으로 넘어오게해 유엔군측이 긴급진화작업을 벌이기도했다.

美合參議長에 베시

【워싱턴4日聯合】 駐韓미군사령관을 역임한바 있는 존·베시 美육군참모차장(59)이 오는 6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데이비드·존즈합참의장 후임에 지명됐다고 백악관이 4일 발표했다.

미네소타州 미네아폴리스에서 출생한 베시장군은 2차대전당시 하사관으로출발 지난44년5월6일 앤지오교두보전투중 소위로 임관했으며 지난69년~70년에는 유럽주둔 제3기갑사단의 참모장을 지냈다.

社会漫評



"오고있구나…"

地平線

천둥 번개가 전기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걸 알게된게 2백30년전의 일이었다. 미국의 벤저민·프랭클린이 연을 띄워 번개가 전기라는 사실을 증명한 날이 1752년6월15일이다. 그러나 지금도 유럽의 시골에서는 천둥 번개가 칠때면 교회에서 종을 치는 풍속이 남아있다한다. 애써 가꾼 농작물을 마귀가 망치지못하게 막자는 생각에서라고 한다. ▼지중해 바다속 벌카노라는 섬에서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을 본 옛날 로마사람들은 그 화산이 땅밑저승으로 들어가는 구멍이라고 생각했었다. 그구멍 저밑에는 불의神이 살고있다고 믿었다한다. 천둥번개나 화산폭발의 정체를 사람이 알게된것은 그러니까 최근 몇백년에서 몇십년의일에 지나지 않는다. 과학의시대라고해서 이런 어리석음을 잊을수는 없는것이다. ▼대서양의 버뮤다해역에 수수께끼같은 소위 「魔의3각해역」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얘기다. 비행기나 거대한 배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비극의 해역이다. 수수께끼같은 죽음의 델타해역은 일본동쪽 태평양에도 있다고해서 입씨름거리가 되고있다. 1만4천톤급 화물선 2척이 80년말 구조신호도 없이 사라진뒤 일본에서 문제되기 시작한것이다. ▼일본 동쪽 태평양 죽음의 델타해역에서는 80년 한햇동안 5척의 배가 사라졌다. 10년전에도 4척의 배가 여기에서 없어졌었다. 죽음의 해역은 마닐라·홍콩·대만을 잇는 3각해역에도 있다고해서 작년에 문제가 됐었다. 79년5월과 이듬해 1월까지 3척의 중공화물선이 증발했던 것이다. 아마도 마귀나 우주인의 짓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없는 수수께끼다. ▼공산권에서는 입도 뻥끗 못했던 비행접시에 관한 보도가 중공에서는 이제 공개되고있다. 중공의 한 대학교수는 한술 더 떠서 비행접시에 관한 기록이 중국에서는 이미 3백64년전부터 남아 있다고 지난달 人民日報에서 자랑하고 있다. 죽음의 해역이나 비행접시도 알고보면 천둥번개처럼 단순한 것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간의 지식은 연을 띄우던 때와 별다른게 없다고도 할수있다. ▼미국과 소련은 지금 거대한 전파망원경으로 우주저편의 비밀을 캐는 연구를 하고있다. 혹시 고등생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연구목적의 하나다. 한달넘게 북반구를 떠돌고있는 수수께끼의 구름이 화제가되는것도 번개가 치면 교회의 종을 치는 심리와 같은 것이다. 비행접시란 모세의 불기둥·구름기둥같은 것이라는 심리학자 융의 말처럼 현대인의 불안의식과도 관련되는 것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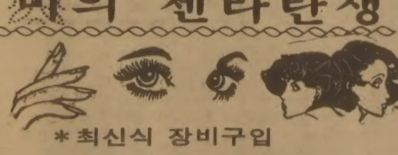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 (B)
791-8196 (R)

종교서관
535-1920
● 기독교및 일반서적
★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Annie's
Beauty Care Center
(Hair Wizards)
♥여성의 희소식♥
미의 센타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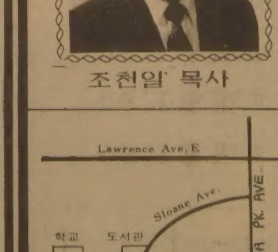


*최신식 장비구입
*여드름 치료
*잔주름 제거
*노화방지
*살결을 탄력있고 부드럽게
*매니큐—패티큐
● 불란서 최고급 화장품 사용하여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
● 털이많아 고민하시는분.
● 바른 화장법 지도.
6093 Yonge St. (영×흰치)
Yonge 센타 플라자 내
☎ : 223-7884~5 Mrs. 리

심령대부흥회

조천일 목사

강 사 : 조천일 목사
(나성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담임)
시 일 : 1982년3월18일(목)~21일(일) 매일저녁7시
장 소 : 토론토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7 Gretna Ave.)



교통편 : Woodbine정류장에서 91, 91—C번버스를이용하시면 교회앞에서 내리심
문의및연락 : 김경진 목사(281—5706)
고형석 장로(493—8782)

스키 협회
발기인모집

발전하는 교포사회와 함께 성장되는 스키붐과 편승하고저 아래와 같이 스키발기인 모집을 하고저 하오니 스키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나 관심을 갖고저 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 3월20일(토)
시간 : 오후7시
장소 : 한국관

雄姿드러낸 최고최대의 掛佛

固城郡 臥龍山 雲興寺서 2百40년만에 공개

높이16·8 폭10m…7色 그림

"걸고 祈禱하면 비온다"傳說

壬亂때 倭軍이 搬出기도失敗

◇固城臥龍山 雲興寺에서 모습을드러낸 우리나라 최고최대 괘불(掛佛)

우리나라 최고최대의 괘불(掛佛)이 3일 상오11시 경남固城郡下二面 臥龍山 雲興寺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雲興寺에는 전국의 2천여 불교신도및 각 사찰주지등이 참석, 이 절에 보관중인 괘불을 게양하고 국태민안과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불도를 올렸다.

높이16·8m, 폭10m의 [illegible]

'歷史나 규모로보아 寶物 指定돼야'

[illegible] 【三千浦=聯合】

해외就業 모집業務 公益法人·市道서도

保社委、職業安定法개정안 일부修正

근로자募集 申告制로

신체障碍者 고용促進

◇「全대통령 영도하의 韓國, 새로운 활기의 감각」이라는 큰 제목아래 4일자 뉴욕·타임즈지에 게재된 韓國관계기사。NYT지는 81년1월 全대통령부처의 訪美당시의 사진을 게재했다。 【뉴욕5日AP聯合】

국회保社委의 法案심사 小委는 정부가 제출한 職業安定法개정안을 修正, 정부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대통령令으로 정한후 오는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illegible]

"한국은 새活力에 차 있다"

全대통령 就任한돌 국내외서 信任

NYT紙 보도

【뉴욕4日=金泰雄특파원】 뉴욕·타임즈는 4일 全斗煥 대통령영도하의 한국은 새로운 활력에 차있다」라는 제하의기사에 작년 全대통령訪美때 사진을 곁들여 크게 보도하고 全대통령을 국내외가 신임하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부각시켰다.

뉴욕·타임즈는 이날 스토크스東京지국장의 기사를 4面 전면에 걸쳐싣고 全대통령은 밖으로는 우방의, 그리고 국내에서는 軍部와 業界의 신임을 얻었을뿐더러 정부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었으며 경제악순환을 회복시켰다고 보도했다.

[illegible]

에콰도르商工長官 劉總理、접견 歡談

公務수행 海外여행 배우자도 旅費지급

1級이상공무원

[illegible]

千萬원미만 賠償은 地區審議會서 결정

[illegible]

청탁등非違소지 法令·例規 改善대상 千6백2件 選定

政府、작년한해동안

[illegible]

터론토市「두더지都市化」

地下시설 더이상 안늘려

[illegible]

제2製鐵 88년完工

5개공장서 2百70萬톤粗鋼

【外紙】 [illegible]

데이터通信 사장 李龍兌박사 내정

[illegible]

人事異動 / 國稅廳 / 水協 / 한국일보 / 本社來訪

[illegible]

社說

健全經濟와 國民參與

—비싸고 나쁜商品 안사도록 하자

국민모두가 건전한 경제秩序를 유지하는 파수꾼이 돼야하겠다. 동시에 소비자의 權益을 위해서 국민들도 스스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경제인이 되도록해야 한다.

4일 全斗煥 대통령은 江原道廳을 순시중 『오늘날의 경제는 몇사람의 전문가나 훌륭한 경제정책에 의해서만 성장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국민이 경제인이돼서 물가안정, 品質관리, 기술혁신, 生産性향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국민스스로 비싼物件이나 低質品은 사지도 말것이며 만약 고장나거나 저질품일경우에는 해당商品의 생산·판매자에게 제품의 교환을 요구하고 소비자告發센터등에 고발함으로써 업자들로 하여금 良質廉價品을 생산토록 유도하고 경쟁시켜야 한다고 가리켰다.

이같은 全대통령의 지적을 기다릴 것도 없이 先後國 모두가 오늘날 국민경제를 질서있게 營爲·發展시킴에 있어서 정부나 企業 그리고 최종소비자인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자각과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있다. 그것없이는 최대한의 經濟效率를 올리지못함은 물론 [illegible] 시정해 낼수 또한 없는때문이다.

만약 국민들이 경제운영에 무관심하거나 해당경제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상식을 지니지 못한다면 不良商品과 有害食品을 가려낼 도리는 없을 것이다. 또 商品價에 대한 비교감각이 부족한 경우, 상인들이 요구하는 不當價格을 額面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꼴이 될 것이며 설사 뒤늦게나마 不良品이거나 부당한 高價品인줄 깨달았다하여도 시정要求와 告發을 못한채 경제적非理만 助長·默認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국민모두가 경제에 관심을 갖고 모든 것을 살피고 따지며 商品의 品質·性能이나 價格面에 걸쳐서 비교선택할만한 경제적 素養을 갖고있다면 事態는 判異하게 달라질 것이다.

설령 운나쁘게 不良低質品 또는 부당高價品을 사들였다할지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事後노력을 적절히 하여 어느정도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고 나아가서 업자에게 警告함으로써 非違를 거듭하지 못하게 만들수 있다.

先進國의 경우는 정부의 적절한 [illegible] 제대로 갖추어져 있을뿐 아니라 그에 보태 국민들이 모든 경제행위의 利害당사자로 적극 참여함으로써 監視와 告發을 게을리하지 않고있다.

따라서 惡德업자들이 存立할 여지가 없게되고 소비자利益에 봉사하는 양심적이며 경제적인 업체는 계속 흥성하여 경쟁을 主軸으로 삼는 자유경제의 眞價를 두루 享有할수있게된다.

이렇게 볼때 그동안 국내경제운영에 있어 소비자인 일반국민의 참여意識이 흐림으로써 국민경제, 특히 소비자 보호側面에서 입은 有形無形의 손해는 이만저만한것이 아니었을성싶다.

그리된 까닭은 국민다대수가 경제운영에서 主人意識을 갖지않고 傍觀者의태도로 임했거나, 아니면 복잡한 경제流通및 商品學에관한 상식이 不足한 탓도 없지않았다. 하나 그에 못지않게 價格表示를 비롯, 品質含量表示와 標準規格등 制度面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비교선택의 기회를 보장해줄 法的장치가 미흡한데 연유하는 바 더 컸다하여 過言은 아닐것이다. 특히 價格및 品質表示制가「義務化」또는「勸奬」이라는 美名아래 애매모호하게 다루어지는 바람에 소비자는 比較選擇할 눈이나 기회마저 박탈당한채 한상 억울하고 不利한처지에 서게 마련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公正去來法, 소비자보호에 관한 法律같은것을 발동시키고 있기는하지만 막상 그 알맹이가 돼야할 施行令을 지금껏 빠뜨리고 있는것은 크게 반성돼야 하겠다.

모든 국민이 경제인이 되게 하기위하여는 自覺도 빼놓을수 없는것이지만 국민경제 특히 소비자보호와 관련되는 일련의 法制度를 정비俱有하는일이 빠를수록 좋을것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겠다.

關心 큰 中共動向

—그內部激動과 美·中關係를 보며

中共의 鄧小平體制는 文革이래 최대의 試鍊에 부딪쳐 있는것 같다. 안으로는 行政機構의 縮小와 黨僚職의 改編등 대대적인 人事肅正이 단행되고 있으며 밖으로는 美國과 10년동안 지속시켜 온 友好關係가 최근들어 급격히 冷却되어 美·中兩國이 步調를 같이 해온 많은 對外問題에서의 共同對處마저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觀測을 낳게하고있다. 안팎으로 닥치고 있는 이런 試鍊은 따지고 보면 鄧小平의 實用主義路線에 脈絡이 닿는 일이라 하겠다.

鄧의 實用主義 노선에 좇아 中共이「現代化」를 수행하려면 黨·政機構를 더 능률적으로 축소하고 人事肅正을 강행안할수 없는 모양이다. 또 그 노선에따른 經濟의 現代化도 西方側과의 資本·技術面의 유대관계를 그대로 유지해나감으로써 비로소 가능할것으로 보는이상 美國과의 관계가 좀 不便해졌다해서 北京當局이 극단적결정을 이내 내릴수는 없을것이다. 이런 視角에서 살필때 中共의 向後動向엔 많은 關心이 쏠려진다.

昨年末 鄧小平은 黨政治擴大會議에서「黨內官僚特權現象」에 대해 警告하면서 24개분야의 不條理를 지적, 숙청을 단행할것을 공언하였다.

그가 지적한것 가운데는「機構臃腫」「人浮於事」즉,「기구만 팽대해 지고 있다」,「일의 量보다 人員이 더 많다」는 대목도 포함돼 있었다. 機構의 팽창과 人員의 증대는 그동안 中共의 政府機構나 人事制度에 한번도 整備의 손을 댄 일이 없어 오랜積弊가 병리현상으로 나타난것이라고도 하겠지만 반면 文革중에 많은人員이 革命을 빙자하며 黨과政府안에 끼어들어「肥大」에 박차를 加하게 되었던점도 없지않았다.

더구나 肥大해진 黨과 政府의 그늘에서 그동안 부패와 不正이 만연하였다고 한다. 요즘 中共안에서 발간되는 신문들은 자주 黨과 政府의 高位職가운데서 不正을 저지르다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中共內部에서 진행되고 있는 大肅正은 鄧이 實用主義 路線을 그대로 이행하여 中共의 現代化를 실현하겠다는 計劃의 強行결과 빚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동시에 鄧小平—趙紫陽—胡耀邦으로 이어지는 指導體制를 튼튼하게 굳히는 계기로 삼고자하는 면도 없지않음을 지적할수있다. 어떤 동기에 더 치중했든, 우리로서는 中共이 현재의 開放지향體制를 그대로 維持하면서 그「現代化」가 순조로운 軌道에올라서게 된다면 그에 대해 굳이 是也非也할 필요는 없을듯 하다.

그러나 美·中共關係에 있어서는 근자의 不便한 관계가 빨리 청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美·中共이 꼭10년전 上海에서 共同聲明을 발표하고 關係正常化에 들어섰을때 兩國은 世界도처에서 勢力을 팽창하는 소련에 대해「公敵1號」라는 認識에 일치하고 있었다.

그러던것이 自由中國방위에 관심이 각별한 레이건行政府가 그간 [illegible] 制限的인 武器供與를 계속 하는것을 양해토록 中共에 요구하자 北京측은 그에대해 분명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한편 美國과의 관계에 극한적인 비판까지 하고 나서 종전의 태도를 변화시킬것같지않은 상태에 이르렀다.

이처럼 美·中共關係가 冷却되는 틈을 타서「公敵1號」인 소련이 中共에다 國境問題協商을 벌이자는등 추파를 던지고있는것은 우리의 耳目을 은근히 자극시킨다. 그것은 美·中共관계가 冷化하고 中·蘇간의 對立이 누그러지기라도 한다면 韓半島를 둘러싼 勢力균형관계에 어떤 변동이 생기도 쉽다는데서 오는 것이다.

그렇지않아도 東北亞地域에 대한 소련의 軍事的進出은 이미 이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깨뜨릴만큼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北韓을 놓고 소련과 中共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事實을 우리는 주목해왔다.

지난10년간 그러했듯이 美·中共關係의 正常 還元은 무엇보다도 東北亞에서의 소련의 軍事的威脅을 防止하는데 가장 강력한 布石이된다. 그뿐아니라 우리周邊의 安全과 平和를 유지·증진시키는데 적지않게 寄與하리라고 보겠다. 근자의 中共동향이나 美·中共관계를 주시하면서 그 상황변전과 귀추에 따른 우리政府의 슬기로운 對應있기를 미리 당부하고 싶은것은 이런餘波를 경시할수 없겠기 때문이다.

政局往來

◆農村은「五空難」에 직면해있어

[illegible]

"갈피 못잡는「그린벨트」… 政府의 所信은 뭐냐"

◆발언시간 줄더라도 重複피하기로

◆北傀요원金日成선전하다추방돼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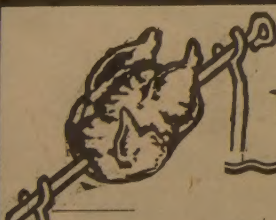
Young—Sook's Jewellery

보석상 개업특별봉사

오는3월1일부터 다운타운에 보석상을 개업합니다. 교민 여러분께 최저 가격으로 특별봉사코자 하오니 꼭 한번 들려주시거나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금·은 취급
* 품질보장
* 뉴 디자인으로 마음에 맞게 해드림.
* 옛날보석 개조 또는 교환 매매.
* 보증서 발행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Fir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Booth No. 10—No. 11
215 Yonge St.
(영×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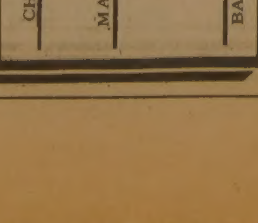


내고향통닭집

특별봉사가격

김 밥 : $2.95	곰 탕 : $3.50
생선초밥 : $4.50	설 렁 탕 : $3.95
오 뎅 : $3.00	빈 대 떡 : 3개 $1.50
오뎅백반 : $3.75	만 두 : 4개 $1.00
가끼우동 : $3.00	에 그 롤 : 4개 $1.50

658½ BLOOR ST. W.
537—0432 Mrs. Lee



공 고

제 3 회
동부장로교회컵 볼링대회

일시 : 1982년 3 월27일(토) 12시
장소 : Play-time bowlerama
(33 Samor Dr.) ☎787—7421
경기종목 : 남녀개인전및 단체전(개인전을 토대로 핸디 적용함)
참가비 : 개인전 5불
단체전15불
시상 ○남자개인전 A조 1,2,3등
B조 1,2,3등
○여자개인전 1,2,3등
볼링협회제공
○단체전 1,2,3등
○터키상 남자2명 여자1명
○하이·싱글상 1명
○장려상 2명
연락 : Mr. 리 ☎ : 633—7797
Mr. 조 ☎ : 226—2709

주최 : 토론토 동부한인장로교회 청년회
후원 : 재 캐나다 볼링 협회

中共軍 百萬명 감축

계급제 復活…精銳化작업착수

高齡將星퇴역등 斷行

總兵力 4百萬…現代戰체계 도모

◇엘살바도르 介入반대 示威 엘살바도르개입과 실업에 반대, 항의를 벌이고있는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의 괴상한모습. LA를방문중인 레이건대통령이 머물고있는 로스앤젤레스 음악홀밖에서 한사람은 수녀복차림, 나머지셋은 전투복차림으로 시위를벌이고있다. 【로스앤젤레스3日UPI電送=聯合】

【北京4日AP=聯合】중공은 군현대화및 정예화작업에 착수, 세계최대규모인 5백만 병력을 4백만명선으로 줄이는 한편 ▲최고령장성들의퇴역 ▲계급부활 ▲새군복착용등의 개혁조치를 단행할것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이 4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소식통들은 이개혁조치가「인민전쟁」과 毛澤東사상에젖어 현대전 체계에서 낙후된 군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공군사문제에 정통한 이 소식통들은 감군문제는 중공의 국방예산삭감등과 관련한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것이라고 말하고 군의 규모를 줄여 정예화한다는 방침은 이미 보도된바있으나 감군규모가 밝혀진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들은 3~5년의 복무기한이 끝난 군인들을 모두 제대시키고 신규징병규모를 줄이며 교육수준이 높은 장정들을 징집하는등의 방법을 통해 현재 5백만명의 중공군을 4백만명선으로 줄이는 점진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이어 현관료체제의 축소조정과 발맞춰 금년말까지「長征」에 참여한 늙고나태한 다수의 장성들을 고문직에 임명하는 방법으로 퇴역시킬것이며 퇴역장군들은 그들의 특권을 계속향유할 것이나 이들의 요직은 장성들이 차지,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또 금년말까지 고령 장성들의 퇴역문제가 해결되면 1966년 문화혁명중 폐지됐던 軍의 계급제가 부활되며 이와함께 고위장교들에게는 신분에 알맞는 새로운 군복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對蘇戰 대응책은人海전술뿐" 中共軍총참모장 楊得志실토

【北京4日로이터=聯合】中共軍총참모장 楊得志는 최근『중공은 주요가상적국인 소련의 침공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현대무기및 전문기술이 결여돼있다』고 솔직이 시인하고 중공은 바로『어마어마한 땅덩어리와 인구』로 적의침공에 대항할수밖에 없다고 5일 알려졌다.

그는 소련과 전쟁을 치를 경우 중공측의 전술은 한국전당시 썼던「인해전술」과 끈질긴 게릴라전을 벌일수밖에없다고 말한것으로 北京의 외국군사소식통이 전했다.

蘇, 신형爆擊機 개발

B1機와 性能비슷…美防衛網위협

【워싱턴4日=曺淳煥특파원】소련은 美본토를 공격할수있는 美B1폭격기와 유사한 신형 장거리비행폭격기를 제작중에 있다고 와인버거 미국방장관이 4일 워싱턴·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보도했다.

와인버거장관은 B1형 소련 폭격기가 현재 몇대제작중이라고 밝히고 시험비행을 끝냈는지에 관해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는데 美정찰위성이 시범비행중의 소련 신형폭격기사진을 찍었다고 다른 소식통을 인용, 포스트지는 전했다.

와인버거장관은 소련의 B1형 폭격기제작은 막대한 소련군사력 팽창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엘살바도르左翼과 美서 接觸說

【로스앤젤레스4日AP=聯合】레이건 美대통령은 4일 美행정부관리들이 엘살바도르 反政게릴라들과 접촉을 가진 것이란 추측에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않았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그러한 접촉설이 어떠한상황을 말하는것인지 알수없다』고말했다.

戒嚴令위반혐의 拘束人士 15명 波정부에 出國허용 要請

【바르샤바4日AP·로이터=聯合】폴란드계엄령위반혐의로 구금되어 있는 인사중 약15명이 당국에 대해 출국을 허용해줄것을 요청했다고 관영PAP통신이 4일 보도했다.

PAP통신은 이날 각의가 끝난후 한 정부대변인이 이같은사실을밝혔다고전했다.

폴란드정부는 이보다앞서 3일 자유노조원을 포함한 모든 구금자들이 가족과함께 폴란드를 영원히 떠나기를 원할 경우 오는15일부터 여권신청을 받아들일것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대변인은 또 지난 2월23일부터 3월3일 사이에 2백19명의 구속인사가 풀려났고 새로 64명이 구속되었으며 현재 폴란드의 구속인사는 모두 4천명미만이라고 말한것으로 PAP通信은 전했다.

폴란드당국은 지난주 계엄령위반으로 구속된 사람들가운데 국가에 위협을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사람은 석방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美국방성 官吏밝혀

"蘇, 2~3차례의 核爆發로 美軍事 지휘體制 마비가능"

【워싱턴4日AP=聯合】소련은 유사시 2~3차례의『정확한 핵폭발』로 미국의 全군사지휘체제를 마비시켜 상하통신체계를 차단할수 있다고 미국방성의 한 고위관리가 4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고위관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또 적의 핵공격을 조기 경보하는 미국의 위성통신체제도『전선절단기를 휴대한』수명의 적이 지상수신소와 지휘소를 잇는 케이블을 파괴하여 全통신체제를 교란시킬수 있을만큼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리는 따라서 미국의 지휘통제체제를 강화하고 유사시 미국의 대통령과 국방장관및 최고군사 지도자들이 미사일기지와 수중의 잠수함, 기타 핵심부대와『아무런 지장없이』통화할수 있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약2백억달러가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新任 美合參本部議長 존·W·베시大將 (얼굴)

한국을 잘알고 한국을 사랑하는 親韓派

士兵출신…2次戰때 任官후 최고地位에

【워싱턴 5日=曺淳煥특파원】레이건美 대통령에 의해 미합참본부의장으로 임명된 존·윌리엄·베시대장(60)은 한국을 잘알며 한국을 아끼는 장군이다.

베시장군이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6월30일 존스합참의장의 임기가 끝나는대로 그직을 맡게된다.

베시장군의 합참의장임명이 발표된 4일 CBS·TV방송은 베시장군이 78년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육군참모총장으로 승진할수 있었는데도 카터 대통령이 추진했던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여 육군참모차장으로 임명되었다고 저녁뉴스 방송에서 보도했다.

柳炳賢주미대사는 베시장군의 임명에 기쁨을감추지 못하면서 침착한 어조로『베시장군은 지금도 한국을 사랑하고 있읍니다. 그의 육군참모차장 사무실에는 베시장군이 한복차림으로 찍은 사진이 걸려있으며 그사진밑에「우리군인들이 잊을수없는 곳의 하나가 코리아다」라는 글이 쓰여있는것을 보았읍니다』라고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베시장군을「군인중의 군인」이라고 표현한것은 그가 2차대전중 이탈리아의 안지오부두전투에서 병사로 싸우던중 적의 탱크앞에 모든사병들이 후퇴하는데 포를 조준하여 탱크를 파괴한 공로로 전투중 임관된 것을 뜻할 것이라고 장군출신의 柳炳賢대사는 풀이했다.

육사를 졸업하지않고 사병으로부터 대장으로 군의 모든 계급을 밟고 3군의 참모총장을 거치지 않으면서 가장 높은 군지위인 합참의장에 임명된것은 미군사상 기록적인 것이라고柳炳賢대사는 논평했다.

베시장군이 육군작전참모부장으로 있을때 그밑에서 차장으로근무했던 바이어장군이 미육군참모총장이 되었는데 기꺼이 차장으로 들어간것은『지위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일이 중요하다』는데서 나온 판단으로 존경받는 장군이라고 柳炳賢대사는표현했다.

한국을 알고 한국을 사랑하며 주한미군철수를 반대한 베시장군이 합참의장으로 임명된것은 한국에 더할나위없이 마음든든한 것이라고 한·미통합사에서 베시장군과 가까이 함께일한 柳炳賢대사는 말했다.

무한한 可能性속에 藝術·학술분야頭角

캐나다의 한국인 (下)

全대통령 危害사건 契機로 본

異民族들 모자이크式 調和

生業관련 團體에 宗親會도

88올림픽·트뤼도首相訪韓 계기로 親密기대

터론토 총영사 李相宸씨의 말은 오늘의 캐나다 교민을 한마디로 대변한다. 李영사는 뉴욕에도 근무한적이 있어 해외교민의 사정에는 훤하다.

『캐나다교포가 미국교포와 근본적으로 다른점은 없다. 이민역사가 짧아 아직 정착하지 못한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이 잘살며 열심히 뛰고있다』

玄錦環(현금환)元유엔대사가 60년대초 터론토에 있는 요크대학교수로 있을때만해도 터론토에는 불과10여명의 한국인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 10여명중 金대사도 일원이었다.

66년부터 이민문호가 넓어지자 서독에 광부와 간호원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캐나다에 몰려들었다. 월남기술자들과 기타 남미나 미국교포들도 캐나다로 발길을 돌렸다. 물론 교민들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직접온 사람들이다.

70년대초기에 이르자 한국인의 캐나다이민은 러시를 이뤘고 때맞추어 양국관계는 깊어졌으며 73년 캐나다는 한국일보 본사사옥 9층에 駐韓캐나다 대사관을 신설하기도 했다.

76년 캐나다 이민법이 엄격해 지면서 이민이 거의 중단되었고 81년 한햇동안은 1천2백명이 고작이었다. 같은해 미국의 1만여명에 비교하면 아주 적은숫자이다.

교포들의 주된 생업은 상점경영과 공장노동 이다. 담배와 빵에서 어린이 기저귀까지 취급하는 교포상점인 버라이어티·숍(잡화상)은 터론토구석구석은물론 이번 올모단의 崔東華가 거주하던 고급주택가 미시사가까지 널려있다.

상점이 번창함에 따라 교민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저마다 단체를 만들었다. 8백여명에 달하는 버라이어티·숍경영자중 6백여명은「실업인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맥스·밀크나 베이커·밀크 스토어등 프랜차이즈(연쇄점)경영자들은「맥스협회」또는「베이커협회」를 만들었다.

직종도 다양하다. 여름한철 한밤중에 지렁이를 잡아 짭짤한 돈벌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박사·교수·의사등 전문직 종사자도 있다. 아직 터론토에 교포출신변호사는 1명, 개업의사는 2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교포들의 활동무대는 크고 넓다. 교포가 3만인 터론토에한국인 교회수는 30개가 넘고 절(寺)이 4개나 있다. 교포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교회도 많다.

2세교육을 위한 한글을가르치는 학교는 터론토에 만 10여개를 헤아린다. 이학교들은 주말마다 2~3시간씩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캐나다가 미국과 다른점을 잘표현해주는 일화가 하나있다. 작년가을 한국일보 터론토지사 일간발행(이전에는 일주일에 2번발행) 기념파티에 참석했던 메트로·터론토 시의회의장(시장에 해당) 잦프리씨는『미국은 여러민족의 용광로이나 캐나다는각 민족들이 나름대로의 특질을 살려 조화를 이루는 모자이크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같은 캐나다정부의 複合문화주의 때문에 한국인같은 소수 그룹이 고유의 풍습과 언어등을 보존하면서 교포수에 비해 비교적 많은 교회와 단체및 한글학교등을 운영하고있다.

터론토의 한국인들은 보통 모여살지는 않는다. 다만 중심가 가까운 블루어街에 50여개한인상점이 모여 비즈니스·타운을 형성하고 있을뿐이다. 로스앤젤레스의 올림픽街와 같은 이곳에는 한글간판들이 나붙고 교포들이 장바구니를들고 다니는모습을 흔히 볼수있는 캐나다속의 한국이다.

TV탤런트출신의 나오녀씨가 경영하는 한국관등 음식점이 6개, 선물센터가 4개, 고춧가루에서부터 게장까지 파는 한국식품점이 3개, 여행사가 4개있다. 또 한 바둑을 두는 기원이 있는가 하면 전자침을 놓는 한약방들이 교민유치경쟁에 열을 올리고있다.

단체도 가지가지이다. 재정적으로 튼튼한 실업인협회, 체육회와 서울올림픽 후원회등 사회단체가 있는가하면 호남향우회 경북향우회 황해도민회등 지역적단체도있다. 또 경주李씨종친회같은 혈연적 단체도 있다. 이밖에도 많은 고교및 대학동창회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정치 참여를 위한 정치단체는없어 아쉽다고 말하는 교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일부 교포들은 서울에서의 출세를 위한 해바라기성향도 있지만 대부분의교포들은 하루10여시간씩 열심히 일하면서 자녀양육에 정열을쏟고있다.

친척방문차 왔다가 이민을 원해 급작스레 결혼하는 총각·처녀들이 많았으나 교포사회가 좁고 서로간의 교류가 타민족보다 훨씬 많은탓으로 서로 잘알게되어 사기결혼등의 피해는 미국보다 적은 잇점도있다.

터론토는 뉴욕이나 디트로이트같이 범죄가 많은 곳은 아니다. 많은교포들이 상점을 경영하나 지금까지 무장강도에게 살해당한 교포는李씨피살사건1건뿐이었다.

崔東華의 아버지 崔泓熙를 중심으로한 친북한계 인사들도 20여명에 지나지않는 극소수에 지나지않는다. 77년과 78년을 정점으로해서 소위「빨갱이논쟁」「KCIA논쟁」이 불붙듯 일어나 한인사회가 두쪽으로 갈라지는 불행한 사태가 날 위험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올모사건을 계기로 진짜와 가짜가 판명되어 친북한계 그룹의 활동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빨갱이논쟁」이란 反정부인사까지를 합쳐서 빨갱이라고 지칭했다는 것이고 이와반대로 친정부발언을 하는 사람은 모두 KCIA나인이 찍히는 그런 稚氣마저 엿보이는 흑백논쟁이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캐나다교민사회의 주요 이슈중 하나는『시민권자인 우리가 이북에가서 친척을 방문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하는 주장과『그래도 이북은 특수사회이므로 안가는것이 낫다』라는 반대의견이었다. 결국 이번올모사건은 인도적 견지에서라도 북괴방문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단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교포들은 캐나다의 심장부에도 들어가있다. 새產油地로 요즘 한창 붐을타고있는 앨버타州 캘가리市에서 한국土產品상회를 한교포가 운영하고있다.

세계의 관광지 나이애가라 폭포를 뒷뜰네개울정도로 생각하고 골프와 스키로 여름과 겨울을 보내는 그런 교민들이 점차 늘어가는 과정에서 코리안의 이미지는 캐나다사회에서 부침을 겪고 있다.

예술이나 학술분야에서 우리동포들은 두각을 나타내는 반면, 유가증권위조·폭행등 범죄적인 사건에 일부교포가 관련되어 이곳 매스컴에 오르내렸다. 어글리·코리안의 이미지이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한국야구 崔東原이 프로야구터론토·블루지스 스카우트거절 배짱을 부렸을 때는 캐나다인들이 놀랐고 全대통령 위해 음모사건 같이 또 다른 대형 범죄 사고가 났을때 또 깜짝 놀랐다.

그러나 한국과 캐나다는 오는 88년 서울과 캘가리가 하계및 동계올림픽을 개최, 트뤼도캐나다수상의 방한등 양국관계가 밀접해 양국교역량이 연 10억달러나 되는 점도 교민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든다. 그럼으로써 광활한 나라 캐나다는 한국 교민들에게 더욱 더 무한한 가능성을 갖게 해준다. 【터론토支社】

◇자선파티 參席한 다이애너妃 4일밤 멋진 이브닝가운을 차려입고 왕실의 자선파티에 참석하고있는 다이애너英國황태자비. 임신중임이 뚜렷이 드러나보인다. 【런던4日AP電送=聯合】

海外토픽

蘇誌서 브레즈네프 諷刺 "超人…그러나 그는 죽을것이다"

브레즈네프 공산당서기장(그림)이 고희를 훨씬넘기도록 권좌를 유지하고있는사실을 비방하고있음이 분명한 한풍자글이 소련의 한문예지의 지난12월호에 발표되었음이 뒤늦게 확인돼 黨이론가 미하일·수슬로프의사망후 나돈 크렘린내 권력암투설과관련, 모스크바정계관측통들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소련문예지 오로라의 12월호 75페이지 전면에 걸쳐 게재된「치사」라는 제하의 이기사는『벌써 사망했을것이라고 모두들 생각했던 빵이 붉고 몸집이 비대한 한 이상한 작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있었다.

이 기사는『이사람은 실로 슈퍼맨(초인)이다. 그는살아있다. 그리고 죽음을 모르고있어 모두를 놀라게하고있다』고 말했다.

유명한 작가인 빅토르·골랴프킨의 기명으로된 이기사는 또『모두들 그가 이미 사망했을것으로 생각했다. 그만큼 그의 재능은 모두의 찬사를 받아왔던 것이다』라고 강조하고『그러나 그는 불그레한 빵과 비대한 몸집 그대로 내앞에 앉아있다. 그는 도무지 죽을 인물같이 생각되지않는다. 그 자신역시도 죽음을 믿지않고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죽게될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측통들은 문제의 이글이 쓸데없는 와병설에도 불구하고 건재를과시하고있는 브레즈네프서기장을 풍자한 것이 틀림없다고 분석했다. 【모스크바=UPI】

메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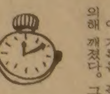
『인간은 時速4㎞로 움직이는 존재』라고 한다. 사람의 生活慣을 시간으로 측정해 본 것이다. 시간을 떠난 일상생활은 상상하기 어렵다. 시간이 우리를 제약하며, 산다는것은 바로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간의 단위는 환경과 관습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다. 우리는「눈 깜짝 할 사이」라는 말을 흔히 쓴다. 마다가스카르지방에선 이 한순간을「밥이 뜸는 사이」,「메뚜기 한마리가 튀겨질때」라고 한다는 것이다. 또 이 지방에선「밥이 뜸들때까지」라는 시간단위도 쓰여진다. 영국엔「주기도문을 외는 사이」란 시간단위가 있다.

이 단위는 몇분 몇초식의 物理시간으로 측정 될수없다. 단지 以心傳心적으로 통용될 뿐,객관적 기준은 배제된 것이다. 낮과 밤이라는 명확한 자연현상으로 시간의 개념은 태고부터 있어 왔다. 오늘의 物理時 개념이 나오기전 天文時에 의존했다. 기원이 확실치않은 해시계나 물시계가 옛날의 시간측정 방법이었다.

기계시계가 발명된것은 13세기께로 알려졌지만 본격적으로 사용된것은 17세기 부터다.

눈 깜짝할 사이



현대의 원자시계는 1초와 1만9천분의 1까지 문제 삼는다. 시간과의「超精密싸움」은 스포츠에서도 볼수있다. 1백m달리기는 정말 한순간과의 싸움이다. 단 0.3초의 기록을 단축시키는데 30여년이란 오랜 세월을 필요로 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영웅이었던 제시·오엔스가 10초2로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이 기록은 꼭 20년 지나서 마치슨과 모로에 의해 깨졌다. 그리고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짐·하인즈에 의해 비로소 9초9로 뛰어넘었다. 한순간이란 따지고보면 이렇게 길수도 있다.

올림픽3위의 영광을 기록한 우리 여자배구가 그동안 순식간에 세계하위로 추락하는 걱정이 많았다. 힘과 속도가 모자라 자꾸 처지는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4일에 끝난 실업배구전에서 보여준 저력은 놀라왔다.「힘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과위가 무서운 強打의 위력을 보였다. 세계정상과의 거리단축은 시간문제라는 자신감도 들게한다. 1백m의 초인적기록단축처럼 우리 여자배구도 도약의 가능성을 확고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88년의 시간은 결코 멀지않다.

東国大学校同門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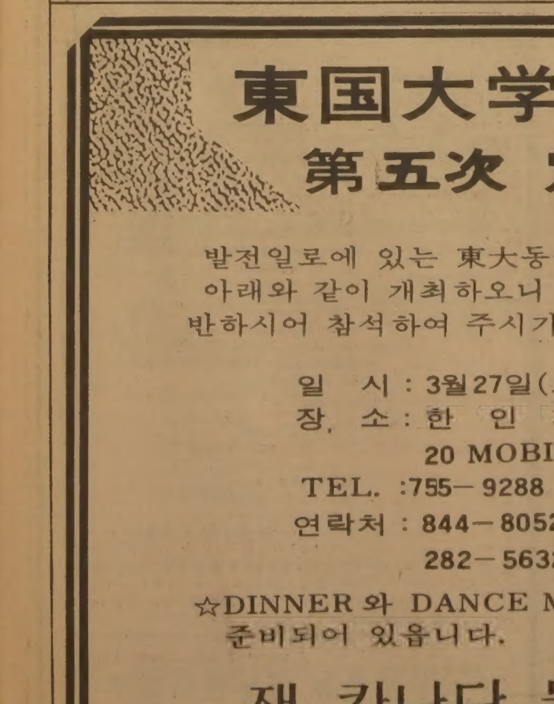
第五次 定期総会

발전일로에 있는 東大동문회 제5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동문여러분 부디 부부동
반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3월27일(토) 오후6시
장 소 : 한 인 회 관
20 MOBILE DR. TORONTO
TEL. :755-9288
연락처 : 844-8052 MR. 정
282-5632 MR. 조

☆DINNER와 DANCE MUSIC PROGRAM이
준비되어 있읍니다.

재 카나다 동국대학교
동문회장 정규영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연속극, 문학영화, 전설…

비디오

VIDEO··VHS,BETA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2시간~3시간)

전설의 고향—하녀, 3종지도, 갯승골 대감, 조강지처, 우는바위
TV문학관—역마, 배따라기, 청산댁, 우전기행, 산상에 서다, 삼포로 가는길, 형씨, 메밀꽃필 무렵등….
영화—육군사관학교, 낙도의 무지개, 탈과 이슬, 펜우가 남긴 한마디, 다정다한, 배삼룡의 일생, 고교얄개전, 오렴대 소년
코메디—웃으면 복이와요, 코메디 출동, 특소대작전, 김희갑 전집.
쇼—명11, 쇼2000, 100분쇼, 쇼쇼쇼, 이미자전집, 최희준전집, 젊음의 행진, 가요싸롱, 흘러간 노래모음, 싱글벙글, 5천만의 대행진등…50여편.
수사극—형사 외 7편
사극—...10여편
민속—...
일요드라마—소망, 부부, 한국의 미, 암불가족등 10여편
기타—...
경연대회—...
어린이용—...50여편
한국및 외화—...약 230여편의 프로그램과, 매월 20여편의 뉴 테잎이 반입될 예정입니다.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536-1692
SUN·MI GRAPHIC STUDIO 531-6430 921-5908
454 A BLOOR ST. W TORONTO MIDOPA 31

換率…계속 오름勢

美 高金利·弗貨강세로 年상승율 8%線

올들어 두달간 오른폭이 지난해 한해동안 오른폭의 4분의 1이나된다.

환율이 계속해서 높은오름세를 보이고있는것은 높은금리에 뒷받침된 미국달러화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여전한 강세현상을 보이고있기때문이다.

환율상승의 핵심적 요인은 미국고금리와 달러강세는 올해도 전망이 불투명해 예측을 어렵게하고있는데 이에따라 국내달러환율도 전망이 불투명한 형편이다.

환율은 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뿐아니라 수출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있어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안된다.

수출업계에서는 최근 부진상을 보이고있는 수출을 신장시키기위해 좀더 빠른 폭의 환율상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있고 일반소비자나 가정주부들은 한자리수물가를위해 환율의 안정적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환율동향은 다소 빠른쪽으로 오르고 있는 편이다. 정부가 당초 예정한 올해 환율상승률은 연간3%수준인데 올들어 2개월가의 추세는 벌써 연간 8%수준을 기록하고 있기때문이다.

환율정책에 대해 정부는 명백한 부처간 견해통일을 보지못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IMF협의단과 정부일부 부처에서는 10%이상의대[illegible]폭적인 상승으로 환율상승요인을 완전히 없애버려 물가상승과 환율인상의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다른 일부 부처에서는 물가안정노력의 지속만으로 환율상승요인을 없애 물가안정→환율안정의 바람직한 순환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환율이 10%오르면 이것만으로도 물가가 3~5%나오르는것으로 분석되고있어 앞으로 정부가 이다루기힘든 환율정책을 어떻게 운용해나갈지 주목되고있다.

10%에 物價3~5% 영향
「한자리數」정책 크게 위협

달러환율이 계속해서 급한 오름세를보이고있다.

5일 한국은행이 고시한 집중기준율(달러교환기준비율)은 7백12원1。지난연말의 7백원50전에 비해 금액으로 11원50전, 비율로 1.64%가올랐다. 이것을 연간상승률(영업일수로 따진것)로 환산해보면 7.8%나돼 8%수준을 거의 육박하게된다. 지난해 한해동안 6.15%(40원60전) 올랐던데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미국달러에 대해서는 약세(오른것)를 보이고있는 우리나라 원화가 일본엔화나 유럽통화에 대해서는 계속 강세(내린것)현상을 보여 일본·유럽지역에 대한 수출이 둔화되는등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있다. 우리나라돈은 지난해중 일본엔이나 서독마르크에 대해 1·94%및 7·4%씩 하락했으며 올들어서도 2월말현재 6·06%와 4·44%가 내려 약세현상이 가속화되고있다.

歲收부진 재정惡化
2월중 2천2백67億 赤字

세입이 잘안걷혀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나고있다. 지난 2월중 세입은 내국세 9백63억원, 관세 5백91억원, 방위세 4백79억원, 교육세 40억원, 전매익금 3백억원, 기타 2백36억원등 모두 2천6백9억원으로 작년동기의 4천5백9억원에 비해 58%밖에 안된다. 특히 내국세와 방위세는 작년2월 1천9백19억원및 1천2백60억원이나 걷혔던것에 비하면 절반도 못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올들어 2월말까지의 세수가 극히 부진한데 지난해 2월말까지의 진도율 11.9%보다도 1.7%포인트나 뒤진것이다.

이에비해 정부가 지출한돈은 2월중에만 5천8백76억원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2천2백67억원이나 초과함으로써 올들어 2월말까지 2천2백73억원의 재정수지적자폭을 억원(작년동기 1천5백86억원)에 이르고있다.

또한 이같은 재정적자폭증대는 그대로 시중통화증대로 연결되어 금융부문에서는 긴축이 진행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2월말현재 總通貨증가율이 年率 26·9%로 연간목표율 20~22%보다 높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침체·凶作으로 작년農村賃金 安定

심화되고 있는 농촌일손부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경기침체와 凶作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등으로 지난해 농촌임금이 안정세를 보인 반면 석유류값 인상으로 도정료·운임등 농업용요금이 크게 뛴것으로 나타났다.

株價 연일폭등
電子石油가 主導

전자·석유화학및 건설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연일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5일 證市에서 14개종목이 상종가를 친것을 비롯, 1백34개종목이 오르고 86개종목이 내려 종합주가지수는 올들어 최고인 1백86·8을 기록, 전일의 1백84·9를경신했다.

經濟短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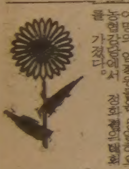
▲上場協、거래소 별관으로 移轉=한국상장회사 협의회는 6일 여의도 증권거래소 별관 10층으로 이전한다. 전화 (783)6501~5.

▲스포츠용구 카탈로그展=貿公은 8일부터 13일까지 貿公열람실에서 해외스포츠용구및 레저용품 카탈로그전시회를 연다.

▲金通運委, 은행점포신설 감독원이관=金通運委는 5일 금융기관의 점포신설과 승격및 폐쇄에관한 인가업무를 은행감독원에 이관키로 의결했다.

▲金星社, 미국에 냉장고 수출=金星社는 5일 미국내 유명백화점 체인인 몽고메리 워드社에 냉장고 3백20만달러어치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수출물량은 2백4쨋리 3만대.

▲農水産部산하기관 결의대회=농협을 비롯한 畜協·農開公·農組·農經研·馬事會등 농수산부산하기관 7백여명의 임직원들은 5일 하오 농협강당에서 정화결의대회를 가졌다.



◇두아르테 ◇무바라크 ◇야루젤스키 ◇鄧小平 ◇미테랑

이스라엘·엘살바도르 兩小國이 世界를 흔든다

3月의 國際氣象
外信部 申相碩기자

갈수도 안갈수도 없는 고민 무바라크의 예루살렘 訪問
베긴, 시나이問題로 아랍서 認定않는「首都」로 초청

3월 세계뉴스의주요표제는 아마도 예루살렘과 산살바도르에서 나올 공산이 크다. 기독교 회교성지가 나란히 있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首都로 삼고 있으나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그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도시이다.

반면 산살바도르는 버젓이 엘살바도르의 수도이지만 그안에들어앉은 정부의 정통성이 좌익세력으로부터 크게 도전받는 도시이다.

둘다 小國의 수도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두도시는 이달에 저마다 한판승부에 이겨야한다는 긴박감에 휩싸여 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정부는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한테 이달중순께 예루살렘을방문해 달라는 초청장을 띄워놓고있다. 무바라크의 이스라엘行은 반드시 가야할 나들이 길이다. 베긴 이스라엘수상의 카이로방문에 대한 答禮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오는 4월25일까지 시나이반도 완전반환을확인하기위해서 무바라크의 이스라엘방문은 무바라크쪽에서 더 원하는 여행이다.

문제는 이스라엘쪽에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무바라크를 불러들이는데 있다. 무바라크는 망설일수밖에없다. 무바라크는 일단 예루살렘으로는 갈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측은 그렇다면 오지않아도 좋다는 투로 나왔다.

예루살렘은 사다트 전이집트대통령이 지난78년 역사적 이집트―이스라엘의 和解를 위해 망설임없이 찾아간 곳이다.

그러나 82년의 무바라크는 그당시의 사다트처럼 대담할수가 없다. 사다트시대에 反目했던 아랍형제국과 다시 화해를 모색하고 있는 처지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건 아물어가는 상처에 다시 곪집을 만들어주는거나 다름없다. 회교성지가 있는 東예루살렘을버젓이 합병해놓고난뒤 나온 이스라엘의 초청은 무바라크가 응해도 말썽이 따르고 응하지않아도 말썽은 나게돼있다.

지난해6월 사다트―베긴회담후 이스라엘은 이라크원자로 공격을 단행했고 사다트가 죽은후인 12월엔 골란고원을 합병한사실이 무바라크의 옷자락을 또한가닥 잡아당기고 있을것같다.

■…지구 회전축을 중심으로하면 이스라엘의 반대쪽에있는 엘살바도르에서는 오는 3월28일 합헌정부를 탄생시킬 총선거를실시한다.

그러나 우파만 출마할수 있고 정부군이 지배하는 지역에서만실시될 이 절름발이선거는 꼭 베트콩과 지리한 싸움을 벌이면서 티우가 치른 선거와 엇비슷한 양상이다.

정부군은 선거의 안전을 도모하고 한지역이라도 더 장악해서 지지기반을 넓혔다고 과시하기위해 대규모 소탕전을 개시할것이며 게릴라들은 선거를 방해하기위해 공세를 강화하여 등쪽간의 유혈사태가 가속될것이다.

두아르테, 28일 總選강행
波자유노조 봄철맞아 다시 꿈틀
中共엔 2百萬명大肅清의 태풍

노력이 성공하기에는 엘살바도르 군사정권과 군대가 너무 취약점이 많다.

엘살바도르정권은 탄압정책으로 국민의 지지기반을 잃은데다 군대는 무력하고 인적자원이 빈약하다.

군대는 원조받은 미제무기를게릴라들에게팔아먹는등전혀규율이 서있지않다. 미국은 게릴라작전에 필요한 더많은 헬리콥터를 원조하고싶지만 이를 조종할 조종사도없다.

반면 4천~6천명으로 추산되는 게릴라들은 게릴라전의 이점을 최대로 활용하고있다.

비록 두아르테정권에는 반대하나 선거에는 찬성하는 가톨릭계의 동정이 작은 위안거리다.

관측통들은 반대세력의 참여없는 총선강행은 두아르테극우정권의 안보를 강화할뿐 더많은 엘살바도르인을 좌경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것이라고 말하고있다.

엘살바도르의 좌익게릴라들을 군사작전으로 제압하려는 미국의 계획은 게릴라들은 세계에서도 가장험한 산악지대를 무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현재 엘살바도르 정부군 능력으로는 게릴라소탕은 역부족이다.

결국 어느쪽도 쉽게 승리할수 없는 국제적지원을 받는 내전만 악화될 공산이다.

레이건 美행정부는 군사개입을 말라는 비난을 피하기위해 中美와 카리브해지역에 7억5천만달러의 긴급경제원조를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너무 늦은 처방이라고 보고있다.

중미의 당면한 문제는 바로 파경에 이른 경제때문이다.

■…중공에서는 소위「新革命」이라 불리는 행정구조개편을 통한 대숙청작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부패관리, 무능력자, 좌경분자들을 대상으로한 이숙청작업으로 중공전역에서 2백만명가량의 관리들이 사임할 것이라 한다.

오는 5일께 폐막될 全人代상무위원회는 최고실력자인 黨부주석 鄧小平의 숙청계획에 관한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예상된다.

■…『겨울은 저들의 것(군대)이었으나 봄은 우리의 것』이라며 지하로잠입한 자유노조원들이 저항운동의 전열을가다듬고있는 폴란드에는 군대의 계엄통치나 경제난국이 쉽게해결될것 같지않다.

자유노조세력은 계엄령의 제1차 쇼크에서 벗어나 최근 전단및 소책자배포등을 통해 활동을 서서히 재개하고있다.

이들은 비밀기구조직등 전열이 정비되면 조직적인저항운동이 본격화할것같다. 야루젤스키수상은 지난1일부터 2일간의 소련방문에서 소련지도자들에게 폴란드공산당통치에 도전하는 어떠한 시도도 분쇄할것임을 다짐한것으로보아 반정세력에대한 탄압을 가속화할것같다.

야루젤스키는 앞으로 이념교육을 통한 공산당강화를 추진하고 노조의 정치참여를 방지할 제도적장치를 마련할때까지 계엄령을 풀지는 않을것으로 본인다.

소련이 약속한 상당한양의 경제원조는 야루젤스키의 감경책수행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

야루젤스키는 그동안 미국등서방측의 제재를 풀게하기위해 계엄완화를 추진하고 있었던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방소성명에서 서방측의 제재를 협박이라고 표현한것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스라엘이 지난해말 골란고원의 합병을 발표했을때 한서방 군사전문가는『이스라엘은 안보를 얻었으되 평화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아랍세계와의 평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이스라엘의 공군기가 2월28일 레바논남부 정유도시인 자자니시를 저공정찰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스라엘의 남부레바논 팔레스타인게릴라기지 공격 가능성때문에 필립·하비브중동특사가 1일부터 레바논과 이스라엘을 순방하며 평화노력을 하고있다.

이스라엘의 공격목표는 남부레바논에있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로 선제공격을해 파괴할 목적인것같다.

샤론국방상이 중심이된 이전략은 PLO사령부와 군사시설의 파괴는 물론 최근 소련에서 사들인 5천만달러상당의 최신무기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있다.

미국의 강력한 경고와 하비브특사의 노력으로 레바논 공격은 미수에 그쳤으나 양측의 긴장은 고조되고있다. 샤론국방상은 공격의 구실만기다리고있는 실정이다.

■…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이 1949년 이스라엘 독립후 유럽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3일부터 3일간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미테랑 대통령의 방문으로 국제적으로 외로운 처지의 이스라엘에 큰 힘을 주었으며 프랑스는 앞으로 최소한 이스라엘에 불리한 중동평화안에 앞장서지는 않을것같다.

프랑스는 또 유럽공동체(EC)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행동을 완화하게 할것도 기대하고있다.

아랍국가들의 항의속에 강행되는 미테랑의 이스라엘 방문으로 두나라간의 경제교류가 보다 확대될것으로 보인다.

◇오는28일 총선을앞두고 한치의땅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엘살바도르 군인들이 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53>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⑳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 533－7966 김 영 철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캐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 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Ontario

온타리오 에너지위원회

83년 요금을 위한
공청회 공고

온타리오 에너지위원회법 37조에의거, 온타리오 에너지위원회는 본 위원회 공청회실(14 Carlton St. Tor. 8층)에서오는 4월21일(수)상오9시부터 공청회를 가진다. 공청회에서는 온타리오 하이드로가 제안한 동력비와 요금산출에관한 정책, 정책변경의 효과를 포함하여 하이드로요금 인상에 대해 심의한다. 이 두가지는 83년1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위원회는 지난2월17일부로 공청회 참가의사통고와 증거제출접수를 시작하는 규칙을 제정, 사전청문회 날자를정했다. 절차규칙사본, 온타리오 하이드로제안에 첨부된 에너지장관의 참고문과 이 공청회공고가 본위원회 주관아래 연평균 동력소비량이 5,000킬로와트 이상되는 공장과 동법37조1항에 명시된 된 도시전력회사등에 배부될 것이다 . 위의3개사본은 본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얻을수 있다.

이 문제에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와 증거제출접수에 관련된 제반문제를 토의하고 공청회시 뒤따를 공청회절차준비를 위해 위원회 법률고문과 직원은 오는 30일 하오2시 본 위원회 공청회실에서 비공식사전 공청회를 가진다.

온타리오 하이드로는 9일(화)본위원회에 그룹제안이 합리적이라는 자세한 증거를 실은 사본을 제출하며 상기고객의요청시 제출사본을 제공한다. 또한 온타리오 하이드로는 이공고에따라 공청회 참가의사통지를한 사람들에게 사본을 보내준다. 이외에도 온타리오 하이드로의 사본은 누구나 온타리오 하이드로사무국(700유니버시티·애비뉴·토론토)에서 비용만내면 얻을수있다. 조사를위한 사본은 토론토의 온타리오하이드로 본부와 베리, 벨러빌, 해밀턴, 런던, 노스베이및노스욕의 지역사무소에서 얻을수있다.

본 위원회에 증거서류를 제출하거나 공청회 참가고객, 기타 사람들은 본 위원회나 온타리오 하이드로 사무국에 오는4월 5일(월)까지 신청해야한다. 접수는 서류제출만 허용되며 이서류에는 참가자의 관심과 그의 참석의 성격과 전망이 판정될 수있는 자세한 사실진술과, 가능하면 참가자의 법률고문의이름, 참가자의 주소가 기재돼야한다.

이같은 참가통지는 개인이직접 가져오거나 혹은 등기우편에의해 아래의 주소로 보내야한다.

Board Secretary
Ontario Energy Board
14 Carlton Street, 9th Floor
Toronto, Ontario
M5B 1J2

and

The Secretary
Ontario Hydro
700 University Avenue
Toronto, Ontario
M5G 1X6

참가의사통지를 접수시킨 고객이나 여타의 사람중 본 위원회에 증거를 제시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같은 증거를 서류로 작성, 본 15부를 본위원회 사무국과 온타리오 하이드로 사무국에 4월14일(수)까지 접수시켜야하며, 본 위원회앞으로 공청회 참가의사를 정식으로 접수시킨 고객과 기타 을람들에게 사본 1부를 보내야 합니다.

누구나 참가통고접수를 하고 공청회에 참석치 않으면 본위원회는 그들이 결석된채로 공청회를 진행할 것이며 그들에게는 이후절차에대한 통지를 하지않을 것이다

1982년 2 월17일

ONTARIO ENERGY BOARD
S.A.C. Thomas
Board Secretary

醫療분쟁 부쩍 늘고있다

7년동안 4倍…작년한해 250여件

◇"의사잘못 不具" 주장에 "아니다" 맞서
병원측의 수술잘못으로 불구가됐다고 주장하는 金世炯씨。

病醫院 66%가 「분쟁」경험
外科·산부인과 手術 말썽많아

의료분쟁이 부쩍 늘고있다。지난75년 전국66건이던것이 지난81년에는 4배가량는 2백50여건이 넘었다。환자 또는 환자가족들이 병원당국이나 담당의사의 잘못으로숨지거나 불구가 됐다고 주장、시작되는 의료분쟁 가운데상당수는 쌍방간의 합의로 해결되고있지만 일부 다툼은 끝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등 큰싸움이 되곤한다。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환자측은 동업자인 다른 의사들의 재감정을믿을수없다고 항변하고있고 의사들은 의사를 불신하는 분쟁이잦으면 어떻게 마음놓고 진료행위를 할수있느냐고 맞서고있어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낮잠만잘때가 아니라는생각이 든다。

"의료심사 조정위는 깊은 낮잠 깨야"

대한의학협회(회장 文太俊)가 지난해11월 실시한 의료분쟁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서울등 15개도시의 1천4백24개의원중 한햇동안66·1%인 9백40개의원이 이같은 의료분쟁을 경험한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수술(30·6%) ▲주사부작용(18%) ▲치료 또는 처치(16·4%) 등의 순이었으며 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및 산부인과등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쟁의45%는 쌍방간의 합의 형식으로 처리됐지만 형사사건으로번진 분쟁가운데 86%가량이 의사의 무죄로판가름났다。

의료분쟁의경우、법정싸움으로 맞서도 피해자가이기는 경우가 거의없다는 결론인데 이에대해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의사의 잘못여부를 판단해주는사람 역시 의사이기때문에 피해자들은 손을쓸수없는형편이라고 불평하고있다。

지난80년5월 서울中區B병원에서 요추부 척수신경감압수술을받은 디스크환자 金世炯씨(28·서울江南區淸潭洞경남아파트1동103호)는 병원측이 고열임에도 수술을 강행、하반신마비、성불구가 됐다고 주장、서울中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金씨는 병원측의 권유로 5월15일 수술을 받았으나 봉합부분에서 혈괴(血塊)가 뭉어지는등 부작용이 있어 23일 2차수술을 받았다。

金씨는 그해8월 퇴원、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않자 지난해 6월 피해보상을 요구、서울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金씨에 의하면 입원당시 병원측이 진단을 하기위해 척추에 조영제(照影劑)를 삽입、특수촬영을 한이후 열이 38도9분까지 올라갔으나 수술스케줄에 쫓겨 얼음찜질을해 37도2분까지 억지로체온을 내린뒤 무리하게 수술에 들어갔다는것。

金씨는 민사사건으로 고소한이후 재판부의 결정에따라 정밀신체검사를 받기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아갔으나 이미 金씨가 찾아오리라는것을 알고있어 병원끼리 짰다고 주장、다시 경찰에고소한것。

한편 金씨를진단、수술했던 白병원측은『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때문에 수술한것』이라면서『완쾌를 장담할수 없지만金씨는 1~2년이 지나면 호전될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道峰區樊洞의 김양일산부인과에서 태어난 吳炳春씨(34·상업·서울道峰區倉洞60-7의22)의 2남은 체중2·5㎏의 5주조산아였지만 정상이라는 의사진단에 따라 22일 퇴원했다。

그러나 그뒤 상태가 계속좋지않아 25일 慶熙의료원에 입원시켰으나 황달이 뇌까지 번져 26일 숨지고 말았다。

吳씨는 황달증세가 있는데도 정상이라고 말한 병원이 잘못이라고 YMCA 시민중계실을 찾았지만 아직 이문제를 해결짓지 못하고있다。

의협은 이같은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의사공제」를 발족시켜 현재 2천여명의 개인 의·병원이 이에 가입하고 있는데 회원은 연회비 10만~30만원을내는 3가지 종류로 구분되며 분쟁이 있으면 심사를 거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의사에게는 3백~1천5백만원까지 보상비를 대주고 있다。

또 의료분쟁해결을위해 미국의 경우 의사보험제도를실시하고 있으며 일본도 10년전부터 의사배상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같은 종합대책이 필요한 싯점에 와있다。

한편 보사부도 의료분쟁증가의 심각성을 인정、의료법을 개정해 국가차원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각시도에 설치키로 했으나 시행령을 아직 마련하지못한 실정이다。

【任喆淳기자】

봄비… 「목타는 南部」 解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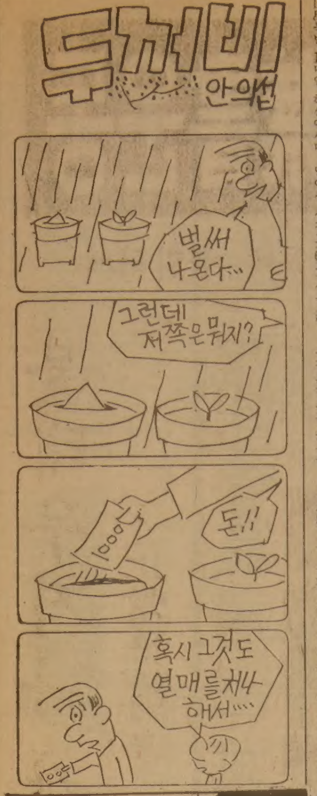
오늘 驚蟄 꽃샘추위 零下3~4도

4일 하룻동안내린 봄비로 전국이 일단 해갈은 됐으나 경칩(驚蟄)인 6일에는 한차례 꽃샘추위가 밀어닥친다。

중앙기상대는 5일 이동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맑은날씨속에 기온이 떨어져 6일아침 서울지방은 영하3도로 내려가는한편 중부지방 영하3~4도、남부지방 3~영하2도로 예년과 비슷한 다소 쌀쌀한날씨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기상대는 7일을고비로 기온이 다시풀려 정상봄날씨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한편 4일아침부터 내린비는 특히 가뭄이 심하던 남부지방에 많이내려 전남康津의 63㎜를 최고로 전국이 평균 30㎜이상의 강우량을보여 식수난을 덜게됐다。또 봄비와 함께 嶺東지방인 大關嶺엔 10㎝、寒溪嶺에는 3·2㎝、陳富嶺엔 15㎝의 폭설이 내려 동해안지방의 해갈에도 큰도움을줬다。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에메랄드·루비 사파이어·진주·오팔
536-1692

9명탄漁船 실종

동지나해역 出漁중… 침몰된듯

【木浦=聯】지난3일하오6시께 전남新安郡黑山面大黑山島북방 14마일 해상에서 마지막 통신연락을 한후 소식이 끊긴 群山수협소속 안강망어선 선천호(63톤·선장 洪龍坤·46)는 5일하오2시현재행방이 밝혀지지않고있다。선천호는 선장 洪씨등 3명을 태우고 지난달 20일 충남長項항을 출항、5일 귀항예정으로 동지나해역에 출어했다가 3일하오 교신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끊겨 해경木浦지구대가 경비정을파견、수색에 나섰으나 아직 소재를 찾지못하고 있다。

이 배에 타고있던 선원은 다음과 같다。

▲선장=洪龍坤(46·전북沃溝郡米面開也里) ▲기관장=宋光哲(35·群山郡仲洞274) ▲선원=宋光植(33·扶安郡二老면177) ▲〃申大勝(27·충남保寧郡大川面新興里) ▲〃崔玉圭(26·충남舒川郡長項邑新昌洞168의51) ▲〃金鍾根(26·群山市京岩洞592) ▲〃閔寧基(24·충남保寧郡大村面始興里) ▲洪大成(50·경북月城郡甘浦邑甘浦里) ▲陳智旭(51·충남舒川郡韓山面松山里220)

文化育成委 설치

서울大、호국단指導委는 폐지

서울대학교는 현재의 학도호국단지도위원회를 폐지하고 보다포괄적인 기능을 맡을「대학문화육성위원회」(가칭)를 신설、새학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4일 서울大관계자는 학생수의격증과 함께 대학생들의 학내활동이 다양해지고 있기때문에 종래의학생지도및 활동지원체제로는 감당키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위원회를신설키로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새위원회에는 ▲학생들의 서클활동▲학도호국단▲대학신문▲학보출판관계▲체육활동등 5개분야에대해 학생들의 자율적활동을 지원할 분과위원회를 두기로했다고 말했다。

輸入양주값 내린다

東南亞수준、관세율引下등 검토

수입양주값이 동남아 수준으로 인하된다。

『수입양주값이 비싸다』는 보도(한국일보 5일자11면톱)가 나가자 교통부는 수입양주 가격을 香港등 동남아수준으로 낮추기위해 수입양주의 현행관세율을 1백50%에서 1백%로 인하、관광호텔 공급가격을 대폭인하하기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관광호텔에서 봉사료、인건비등 마진을 붙인 소비자판매가격도 행정규제를 통해 낮출 방침이다。

수입양주의 관세율이 1백%로인하될 경우 관세율쪽에 따라 부과되는 주세、방위세、부가가치세、교육세등 각종세금도 자동적으로 인하돼 호텔공급가격이 20~30%떨어지게된다。

교통부는 조니·워커블랙의 경우 관광호텔판매가격을 병당 현행9만원을 香港등 동남아수준인 6만원선으로、잔당판매가격을 현재 3천7백50원에서 2천4백50원으로 내릴방침이다。

교통부는 이에앞서 지난12월부터 수입양주의 관광공사 관매수수료를 12%~20%에서 5%로일률적으로 인하、조정했었다。

孔子탄신 2,533돌 春季釋奠봉행

◇釋奠에서 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이 팔일무를 추고있다。

공자탄강 2533주년을 기념하는 춘기석전(春期釋奠)이 5일상오10시 유림대표、주한 외국대사등 2천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서울鍾路區明倫洞 成均館 대성전에서 봉행됐다。

초헌관인 李載瑞 성균관장이 공자위패에 분향을하는 전폐례(奠幣禮)로 시작된 이날 석전은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 분헌(分獻) 음복(飮福)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아내打殺 暗埋藏

40代전과10犯 令狀 2명立件

서울 北部경찰서는 5일 부인을 때려숨지게한후 신고도 않은채 암매장한 姜有三씨(40·전과10범·서울 道峰區 牛耳洞 47의2)를 폭행치사、매장및 묘지관리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하고 암매장이 가능하도록 도와준 姜씨의 처남 文炳□씨(47·서울 銅雀區 鷺梁津2洞 133의13)와 文炳三씨(42·노동·서울永登浦區 大林洞 1056의65)등 2명을 검시방해、매장및 묘지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姜씨는 지난해 11월24일 하오5시께 빗문제로 자기집에서 부인文淑씨(32)와 싸우다 부인을 때려 숨지게한뒤 이틀뒤인26일하오 議政府 시립공동묘지에 매장허가서도없이 암매장했다는것。

妻男부인 2명 연쇄殺人

"家出아내 行方대라" 칼로 찔러

【裡里=聯】4일하오8시께 전북 完州郡參禮邑后亭里63 朴기완씨(35)집에서 朴씨의 매형 申창균씨(38·完州郡參禮邑后亭里371)가 가출한 부인의 행방을 알려주지않는다고 朴씨의부인 李정욱씨(31)를 흉기로 찔러 그자리에서 숨지게했다。

申씨는 이어 裡里市銅山洞225 둘째 처남 朴기섭씨(29)집에찾아가 식칼로 朴씨의 부인 鄭성자씨(28)의 가슴등을 찔러 숨지게했다。

申씨는 이날 평소 자신의 심한주벽때문에 3개월전 가출한 부인 朴정례씨(32)를 찾기위해 차례로 처남집에가 행방을 물었으나 알려주지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申씨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울산에 殺人강도

母子죽이고 金品털어

【蔚山=聯】5일하오4시께 경남蔚山市新亭3洞510의3 최상식씨(48·유리점경영)집에 강도가들어 최씨의부인 박순덕씨(45)와 둘째아들 영우군(16·학성중3년)등 모자를 찔러죽이고 달아났다。

현장을 처음 발견한 큰딸 영인양(21·蔚山工專2년)에 따르면 하오4시30분께학교에서 집에 돌아와보니 어머니가 얼굴 손발 복부등 10여군데가 난자당한채 숨져있었다는 것이다。

電擊出動

최신예 A10機 조종사 킬링少領

"못생겼지만 안전·파괴력은 世界제일"

해리·J·킬링소령(사진)—이달초 한국중부전선 ○○기지에 나타날편 美A10機대대(25전술대대)의 대대장。그로부터 듣는 미국의 최신예 A10機의 제원은 하나의 충격이었다。

『현대전이 전격전(電擊戰·Blitz Krieg)이라면 A10機는 전격전을 수행하는 현대무기의 첨단、바로 그것입니다』

미공군이 나토(北大西洋조약기구)에 이어 유일하게 한국에 배치시킨 이 空對地폭격기는 일반전투기가 장비한 20㎜포보다 12배의 파괴력을 가진 30㎜기관포、4백24㎞반경내 지상표적은 1백%명중시키는 마브릭유도탄、1만8천5백파운드의 폭탄적재량등 가공할 파괴력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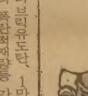
일명「아프리카돼지」(Warthog)로 불리는 이 기종의 최대특징은 기동력。

출격후 지상활동시간이 불과50분으로 제한돼 있어 30분이내에 전광석화같이 목표지점에 벼락을치고다음 20분이면 귀환을 완료한다。

『바싹 다가가 벼락을 쳐라。그다음은 가루가 돼버린 적탱크의 흔적을 확인하는 일만 남는다』이게 A10機조종사의 구호다。

킬링소령의 愛機자랑은 쉽게 멈추지않는다。조종사복의 왼쪽가슴에 우리말로 쓴 멸살(滅殺)이란 구호가 선명하다。

『뭉뚝한 동체에 파격적으로 큰날개、하기야 잘생긴놈은 아닙니다。하지만 가장안전하고 완벽한 친구죠』티타늄합금관으로 보호된 조종실、양날개에 달린 적전파방해장치、한두개가 떨어져나가도 비행기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분리장치된 4개의 연료탱크、20~37㎜의 포탄을 견디는 특수기체가 A10機의 높은 생존력을 보장한다。



애리조나출신인 킬링소령은 지난66년 美애리조나大를 우등으로 졸업、ROTC장교로 전투기 조종사가 됐고、70년에 F100조종사로 越南戰에 참가、주월한국군의 공중지원을 했다。전투기비행시간 3천9백시간、A10機만 6백시간을 몬 미국의 빨간 머플러。

『두고 보십시오。아시아·太平洋지역에 유일한 우리 A10機대대를 세계제1의 A10機부대로 만들겁니다』

그를 만나고 나오면서 문뜩 이런 생각을 했다。『한국동란때 A10機가 단 1대라도 있었다면 우리역사가 달라졌을텐데』

【○○기지=申鉉鈺기자】

道路공사장에 追越택시덮쳐

작업원 셋死傷

5일 하오1시30분께 서울龍山區漢南洞459제3한강교에서 새한택시소속 서울4파6320호 포니택시(운전사 朴仁浩·35)가 다리위에서 아스팔트 보수공사를하던 동부건설 사업소 소속 작업원 尹相敏씨(53)등 3명을 덮쳐 尹씨와 李東鎭씨(50)등 2명이 그자리에서숨지고 金俊坤씨(35)는 중상을입었다。

이날 사고는 漢南洞에서 永東쪽으로 가던 사고택시가 1차선에서 버스를 뒤따라 달리다 다리에서 추월하기위해 차선을 2차선으로 변경하는 순간 공사로 차량을 정리하던 金씨의 우측허벅지를받고 이어앞범퍼로 尹씨와 李씨를 차례로 친것。

이날 아스팔트 보수공사작업에는 3차선에 공사차 8톤 트럭이 정차해있었고 2차선에서 尹씨등 3명이 보수공사를 하고있었는데 공사장20m전방에 깡통에 빨간깃대를 꽂아 공사중이라는표시를 해두었으나눈에잘띄지않았다。

터론토 디스코클럽 文智軾이 폭파했다

【터론토支社5日=柳承琪기자】캐나다경찰은 5일 全대통령위해음모사건과 관련、한국에서 수사받고있는 文智軾(35)이 이제까지 미해결로남아있던 터론토시내의 디스코클럽 폭파사건의범인임이 한국경찰에의해 밝혀짐에따라 음모사건과 함께 폭파사건도 재수사키로했다。

캐나다경찰은『文이 폭파사건의 장본인임을 처음으로 알았다。놀라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의 온테리오州법원은 이날 全대통령위해음모혐의로 구속중인 찰즈·스티븐·야노버(36)의 구속기간을 오는11일까지 1주일연장할것을 명령했다。

故柳基春씨 유해 全南大교정 들러

【光州=聯】柳基春전문교장관 유해가 5일하오2시 고인이 25년간 몸담았던 全南大교정에 도착、평소 따르던 교직자와 친지·학생들이 분향했다。

이날 유해를 실은 영구차가 대강당앞에 마련된 분향소에 도착하자 金稀植지사·吳恒基全南大총장·沈鍾燮全北大총장·金永達朝鮮大총장을 비롯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분향、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잠깐동안의 분향이 끝난후 유해는 정든 캠퍼스를 한바퀴 돈다음 光州시가를 지나 장지인 和順군和順읍校리 선영에 묻혔다。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 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 가요, 문학, 영화, 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푹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페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매상: $5,500 아스킹: $18,950 렌트: 년 $120,000
렌트: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 도나스 샾
①주매상 $12,000, 랜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사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컴 넬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 햄버거 샾
● 드라이크리닝

주소: 609 BLOOR ST. W.
B) 535-1251 B) 536-4250

아직도 <한국일보>를 구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는 캐나다 교포사회에서의 유일한 일간지이며, 우리 이민생활의 반려자입니다.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며, 교민사회의 거울로 언제나 그리운 고향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와 함께 교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일보는 잠시도 휴식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토론토사 (416) 533-2361
구독료: 월9달러, 6개월 50달러, 년99달러
■보내실곳: THE KOREA TIMES(HAN KOOK IL BO)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한국일보
구독 신청서
NAME ....
ADDRESS .... APT
CITY .... PROVINCE ....
POSTAL CODE ☐☐☐ ☐☐☐ PHONE ....

세계의 社會面

美에 特定서적 禁書운동

人種모멸·저속표현등 學生들에 안읽히게

불태우거나 가위질 正當性여부 大法院에 소송

미국전역에 특정서적을 대상으로한 「禁書운동」이 번져가고 있다. 특정인종을 모멸하거나 표현이 저속한 책들을 학생들에게 읽혀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 禁書운동의 목적이다. 아이오와州 데이븐·포트의 흑인학부모들은 소설 「허클베리 핀」을 학생들에게 읽혀서는 안된다고 학교에 압력을 넣고있다. 이 소설은 그내용에서 흑인을 니거(깜둥이)로 욕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사추세츠州 뱀거에서도 학교위원회가 「3백65일」이라는 책을 학생들이 읽지못하도록 결정했다. 베트남전쟁이 17명의 젊은군인들에게 끼친 영향을 다룬 이책은 표현이 지나치게저속하다고 낙인이 찍혔다.

학교에 밀어닥치는 禁書의 물결은 보수적인사는 물론 진보적인 사람들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고있다.

禁書의 대상은 교과서, 사전, 소설, 희곡, 음악을막론하고 학교에서 읽히는것들중 특정인종모멸이나 저속한표현이있으면 모두 해당된다.

책을 불태워버리기도하고 특정부분을 가위로 오리거나 잉크로 지우기도 한다.

禁書운동은 점차 그세력이 미국전역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한편으로는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켜 드디어 그 정당성을 놓고 미국 大法院의 판결을 받게되었다.

뉴욕지역에서 서적검열의 정당성을 가려달라는 소송이 대법원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유에스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誌】

◇터론토의거리는 지상보다 지하에서 더 흥청거린다. 지하철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뚫린 지하거리는 터론토시민들이 추운 겨울날씨를 피해 생활할수있는 아늑한 공간이되고있다.

世界의 사회면

리비아, 낙타輸入…食用으로

濠서 7백마리 지방질없고 營養價높아 人氣

별의 별것을 다 수입하는 돈 많은 아랍나라들. 얼마전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은 건설공사에 쓸 모래를 영국땅에서 최고급품으로 수입했다.

그러나 이번엔 리비아가 호주로 부터 7백마리의 낙타를 사들일 계획을세웠다.

보통 낙타하면 으레 동물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입된 낙타들이 사육돼 식탁에 오를 것이라는데 더욱 놀란다.

낙타젖은 지방질이 없고 영양가가 높아 아랍인들에게 인기가 높은데다 별미라는 것.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등에솟은 혹(瘤)요리가 최고.

호주낙타는 1백40년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들여와 내륙지대를 개발하는데 교통수단으로 써왔다. 그러나 최근자동차 비행기등 현대교통수단에 밀려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지만 아직도 오지에는 많은 야생낙타들이 자생하고있다.

호주의 앨리스 스프링市에는 사파리용, 경기용, 동물원및 서커스단판매용으로 낙타를 대량으로 사육하고있지만 대체적으로 낙타사육은 사양길이다.

호주는 낙타수출물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은없으나 어떻게 선적하느냐에 골치를앓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위크誌】

에너지 節約자금 3천억으로 增額

한국은행은 4일 에너지절약시설자금의 융자규모를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리고 융자대상도 크게확대, 기업아닌 개인도 융자를받을 수있게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절약시설재를 개체또는 보완하는기업에 한해서만 융자가됐으나 앞으로는 대형건물이나 아파트의 노후시설을개체하고자 하는 개인도 융자를받을수 있게됐고, 연료대체설비나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설비를 규격지하는 업체도 융자대상에 포함시키게됐다.

美国 이런일·저런일

秘密보따리 풀지않는 헬름즈

달러박스… 回顧錄집필 거부

國家위해선 "더러운일" 甘受

워터게이트事件엔 곤욕스런 證言

2월한달동안 서울에는 維新전까지의 제3공화국의 갖가지일들(事實)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런 노력은 말을 바꾸면 眞相을 찾으려는것이 되기도한다.

그러나 이런 眞相 糾明의 노력은 누가 이를 찾느냐는 主觀과 누가 이를 말하느냐는데에 따른 또 하나의 主觀이 엇갈려 眞相은 사실에 가깝다느니, 사실을 변명한것이라느니 비판이 일게 마련이다.

미국인들은, 특히 높은 공직을 가진사람들은 모두 재직시의 일들을 책으로 남긴다.

물론 직접 쓰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유령작가(Ghost writer)들이 써주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그의 회고록은 이런 작가의 주관과 그의 주관, 주장, 변명이 뒤범벅되게 마련이다.

리처드·헬름즈는 「보이지않는政府」인 CIA국장으로 66년6월30일부터 73년2월2일까지 역대국장중 가장 오래 자리를 지켰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秘密을 가진사람」이다.

논픽션 작가 토머스·파우어는 그래서 그별명을 따 책이름을 달고 부제로「리처드·헬름즈와 CIA」라고 덧붙였다.

미국인들의 CIA에 대한 의구, 흥미는 대단해 헬름즈보다는 훨씬 그러나 비교적 오래 국장을 지낸 앨런·덜레스는 「정보의 기술」을, 윌리엄·콜비는「명예로운 사람들」을, 副국장을 지낸 라이먼·커크패트릭은 「진짜CIA」를 각각 펴내 베스트·셀러권에 도달했었다.

그러나 가장 秘密을 많이 갖고있는 헬름즈는 단호히 책을 낼것을 거부, 파우어는 각종 CIA의 자료와 헬름즈, 그의 아들, 친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고 헬름즈가 주장하는 헬름즈라기보다 그가 본 헬름즈와 CIA의 내막을 폭로했다.

35년 윌리엄즈 대학을 나온 헬름즈는 UPI의 전신 UP의 베를린 특파원으로 일하기 시작, 신문사 경영이 꿈이었지만 2차대전도중에 CIA의 전신 OSS(전략정보국)에서 일한게 「음지(陰地)의 人」이 되게 했다.

그는 OSS에 갔을때도 情報취급자가 되는걸 싫어했다. 다만 국가를 위한다는면에서 유럽에서의 특파원경험을 선용하려 했다.

그는 CIA가 냉전의 가속화와 미국의 強大化에 따라 각종 비밀작전을 펼때 이를 기획, 감독하는 직책에 머물러 있었지만 파우어에 의하면 가장 비밀작전을 싫어했다고 한다.

◇「정직한 스파이」를 주장하는 헬름즈가 로버트·레드포드가 주연 하는 스파이영화에 대해 의논하고있다. 【75년 2월】

그가 CIA의 핵심인 企劃局長이었던 58~62년사이 쿠바 침공등 갖가지 비밀작전이 벌어졌지만 그는 이런 작전에 교묘히 참가를 피해 66년 여러 경쟁자를 물리치고 국장이 될수있었다.

쿠바침공의 실패는 미국인들에게 CIA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나쁘게 알려주는 면에서의 시작이었다.

이어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이 암살이 카스트로, 고·딘·디엠에 대한 CIA의 암살작전때문에 일어났다는 여론이 일자 더욱 CIA는 곤경에 빠져있었다.

헬름즈의 CIA에 대한 관념은 지극히 간단했다. 미국을 위해서는 조금은 「더러운일」이라도 애국심을 가지고 해야한다. 정보요원은 제임스·본드와야지 르·카르의주인공인 스마일리같이 어두운 사람이어서는안된다. 될수록 깨끗이 일해야한다. 비밀작전은 국가, 즉 대통령을 위해서만 하는것이라는 고지식하고 단순한것이었다.

헬름즈가 가장 곤혹스러웠을때는 이런신념으로 일했을 그보다 전직의 국장의 비밀작전을 감사할때였다.

67년 3월 존슨 대통령이 CIA가 카스트로, 디엠, 트루히요 암살을 기도했음을 보고하라고 했을때 그는 당혹이상의 自愧를 느꼈다는것이다. 애국의 신념으로 행한일을 어떻게감사하느냐였다.

또한 73년 상원 스튜어트, 사이밍턴 청문회에서 그는 칠레의 아옌데 대통령암살사건에 CIA가 개입했느냐고 했을때 단호히 이를 부정, 후에 위증죄로고발되기도했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특히 그의 애국심을 조잡한것으로 언론은 규탄했다.

그는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원에서 곤혹스런증언을 했지만 『대통령을 위한 더러운 일』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그래선지 그는 베스트·셀러가 될게 분명한 회고록 집필을 거부했다.

그는 애국심에서 행한 정보작전은 비밀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1백만달러이상의 고료와 바꾸려 하지 않았다.

【朴涌培특집부장】

記者의 눈

산디니스타의 背信

中美니카라과의 原住인디언 미스키토族。총인구의 4%밖에 안되는 10만여명의 미스키토·인디언들은 온두라스국경의 산악지대에 옹기종기 촌락을 이루며 살고 있다.

최근 니카라과의 좌익 산디니스타정권은 이들이 반정세력의 불씨가 될 것을 우려해 대대적인 疎開와 탄압정책을 취하고 있다. 함께 산디니스타게릴라들과 함께 소모사정권을 무너뜨리는데 한몫을했던 미스키토인들이지만 그들의 自治추구와 고립주의성향으로 산디니스타정권의 박해를 샀던 것。일부미스키토인들은 反산디니스타세력에 가담했다。

이들은 지난12월초부터 개시된 탄압정책으로 촌락 25~40여개가 불타고 8천5백~1만명이 니카라과중부내륙지방으로 강제소개당하고 2백여명이 학살되는 참극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산디니스타정권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한 가운데 탄압을 하고 있기때문에 산악지대에서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길이없다. 최근 수주일동안에 니카라과와 온두라스를 가로질러 흐르는 코코江을 헤엄쳐 온두라스로 피난온 미스키토인들은 5천1백명에 이르며 한결같이 처참한 학살목격담을 전하고 있다.

이 학살선풍을 피해 이강을 건너 탈출해 올것으로 보이는 미스키토족은 3~5천명은 될것으로추산되고 있다.

미스키토피난민들은 온두라스의 모코론에 있는 수용소에서 구호물자에 허덕이고 있다.

2천년전 찬란했던 마야·잉카문명의 후예들인 中·南美의 인디언들은 이같이 가난과 정치적분규, 문명공해에 못이겨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질않는다. 죽이거나 죽어가는것을 방치하고있다. 사라진 마야·잉카문명을 따라 인디언들도 사라지고있는것인가.

【崔海雲기자·外信部】

世界 오페라의 帝王 테너 도밍고

千의 얼굴에 萬의 목소리 구사

팝·송 부르고 映畵서도 好演…뉴스위크誌특집

年 75회 出演 한번에 千여만원

오늘날 세계오페라계의 왕은 누굴까. 오페라제작자들에게 요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곧 출연료이고 무대위에 서면 청중들의 환호와 박수갈채에 파묻히는 사람. 오페라가수이면서도 미국 젊은이들의 우상 존·덴버와 함께 라이트 뮤직을 불러 취입, 1백만장이 팔리는 골든디스크를 기록하고 곧 개봉될 「매리 윈도」「사랑이 아닐까」라는 영화에 출연, 호연까지 한사람。美시사주간지 「뉴스위크」誌는 최근호에서 스페인태생의 테너 플라치도·도밍고(41)를 「세계오페라의 왕」으로 꼽았다.

그가 루치아노·파바로티, 호세·카르레라스, 카를로·베르곤지를 젖히고 오페라무대의 제왕이된 이유는 「히어로的인 목소리, 천부적인 음악가 자질, 뛰어난 연기력, 여성들을 가슴설레게하는 라틴계후예다운 열정적이고 미끈한 외모」를 가졌기때문。

역사상 어느 오페라가수도 그만큼 완벽하게 오페라가수로서 구비된조건을갖춘 성악가가 없었다고 치켜올린 뉴스위크지 보도에 따르면 그는 한번 무대에서는데 무려1만5천달러(韓貨1천50여만원)의 출연료를 받고있다.

또한 그는 1년에 75회씩 오페라 무대에서는 오페라사상 가장 바쁜 가수로 불리고 있다. 지난 3주동안에도 벨리니오페라 「노르마」에 두번 푸치니 「라보엠」에 두번 베르디의 「라퀴엠」에 1번, 메조·소프라노 타티아나·트로야노스와 공동콘서트 개최,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1백인스타의 밤」출연, 패트릭성당에나가 부르는 성가곡열창등 옷갈아입을 시간도없을 정도라고 불평할만큼 바쁘게 뛰고있는 것이다.

이런 바쁜 시간속에서 그는 오는8일 뉴욕서 개막되는 오펜바하작곡의 오페라 「호프만이야기」에서 타이틀롤을 맡아 놀라운 스태미너를 과시하고 있다.

난해한 오페라로 알려진 「호프만이야기」는 주정뱅이 시인의 다채로운 여성편력을 통해 인간의 미움과 사랑과 복수의 감정을 드러매틱하게 그린 작품。

이지적이면서도 난폭하고 남성다운 기백이있으면서도 비열한 호색가 근성을 드러내는 호프만역은 美色과 美聲을겸비한 도밍고에게는 다시 없는 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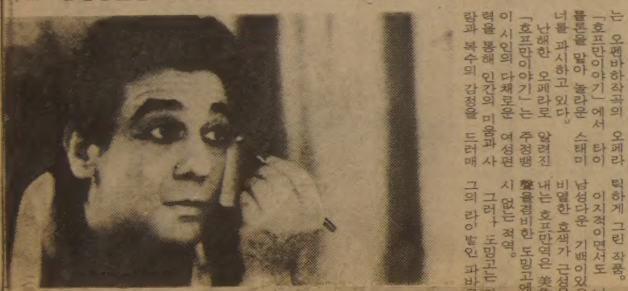
그러나 도밍고는 카루소나 그의 라이벌인 파바로티처럼 한정된 배역이나 음역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는 서정적인 「릴릭」부터「스핀토」드러매틱한 음폭에 이르기까지 자유자재로 불러 지금까지 오페라무대의 82人의 등장인물성격을 1천5백82번이나 노래로 표현했다.

도밍고의 목소리는 파바로티처럼 열광적이지도 못하고 베니아미노·길리처럼 달콤하지도않고 카루소처럼 열정적이지도 베르곤지처럼 세련되지도 않다. 오히려 천박하게 격한 감정을 목소리에 자주담는다.

뉴욕시티오페라의前任지휘자 줄리어스·루델은 「그의목소리는 다정다감하고 인간미가 있다. 중요한것은 목소리속에 자신의 뜨거운 심장을 담아 노래하기 때문에 청중을 매료시킨다」고 설명한다.

스페인 고전歌劇가수를 부모로 둔 도밍고는 6세때 멕시코로 여행을 떠났다가 그곳 자연에 반해버려 멕시코에서 성장, 59년 멕시코국립오페라 가수로 입단했으며, 67년 빈에서 성공적으로데뷔, 명성을 얻어 오늘의 지위를 닦았다. 멕시코여성과 두번결혼한 그는부인 마르타·호세여사와의 사이에 플라치도(16) 알바로(13) 두아들을두고있다. 【뉴스위크誌】


◇세계 오페라계의 제왕으로 군림하고있는 테너가수 플라치도·도 밍고。千의 얼굴에 萬의 목소리를 구사하고있는 그는 마지막분장 손질을 늘 손수한다.

한국의 聽衆들과 歡喜의 交感 확신

올리베이라 오늘公演

귀족적 抒情과 환상적테크닉

모차르트소나타등 5曲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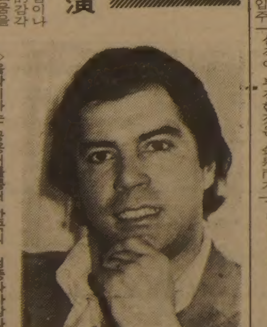
미국이 낳은 위대한바이얼리니스트 엘마·올리베이라(32)가 6일하오7시서울세종문화회관대강당에서 한국청중들을 처음만난다.

나단·밀슈타인의 귀족적인 抒情과 야사·하이페츠의환상적인 테크닉을 겸비하고 있는 「弦의 魔術師」로 불리는 그는「음악이라는만국공용어를 통해 한국의음악 사랑하는 사람들과 환희의 감정을 交感할수 있을것으로 확신한다」고말문을열었다.

포트투갈 이민의 후예답게 굵은 선의 마스크가 인상적인 올리베이라는 音樂이 강렬한 제스추어를좋아하는 열정적인 사나이。이밖에도 古미술품、古가구、東洋양탄자 수집에도 열을 올리고있는데 『미술품이나 고가구속에 서린 美的감각이 연주생활에 많은도움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鄭京和、金永旭씨등의바이얼린「독주회를 들었고 李鏡珠양은 만나본적이 있으며 첼리스트인 李鍾英교수(경희대음대)와는 뉴욕에서 가깝게 지내 한국음악가들의 높은 음악성을 잘알고있다고 칭찬한다。

11세부터 바이얼린을 배우기시작、16세에 번슈타인에게 발탁、28세에 차이코프스키콩쿠르에서 금메달을차지 오늘날의 세계적인 연주가가 되기까지그는「성실과노력」으로 뭉쳐진 사람이라는 평을받아왔다。그러나스스로는『항상 연주가 끝나면 마음이 편치않다。완벽을 기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즉흥때까지 흡족한연주는 할수없을것같다』고 겸손해한다。


◇음악이라는 공용어를통해 한국의 청중과사랑과 환희와 고통의 감정을交感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는 엘마·올리베이라。

그가 1781년製 名器「과다니니」로 이번 내한연주회에서 들려줄곡은 모차르트의「소나타K379」 리하르트·슈트라우스의「소나타 작품18」베토벤의 소나타「작품12의1」 마르티니의「소나타5번」 사라사테의「치고이네르바이젠」등 5곡。

바이얼린 연주의 진수를 들려주는 곡만모아 스스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마지막곡인「치고이네르바이젠」은 숨막히는 격정과 강렬한 터치로 이끌어가는 연주회 분위기를 이완시키고 싶어 택했다는 얘기。

그는 83년까지 스케줄이 짜여있어 여름에 스페인지휘자 라파엘·푸르벡·드·버글라스가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키스트러와 협연하고 곧이어 카네기홀 리사이틀 그리고 필라델피아、로스앤젤레스필하모닉오키스트라와 연주를 갖게된다。『한국에 온김에 젊은 연주가들을 많이 만나보고 한국도 배우고 가겠다』는 올리베이라는 올해 32세의 노총각으로 비올라를 연주하는 애인이 미국에있다。내한독주회 피아노반주는 올리아드音大출신인 미국인 조나단·펠드먼이 맡으며 4년동안 그와함께 일한 익치된 호흡으로 완숙한 연주를 들려줄것으로 기대된다。

【[illegible]기자】

農機械공단 入住부진

金泉 造成4년 1個社만…市 지원어겨

【金泉=駐】경북 金泉市가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농기계공장을 시외곽지로 이전시키기위해 3만여평의 농기계공단을 조성했으나 4년이 지나도록 단1개업체만 입주했다.

5일 金泉市에 따르면 시내에 난립해있는 농기계및서비스공장등 16개업체를 입주시키기위해 지난78년도에 4억여원의 예산으로 新音洞에 상하수도시설을 갖춘 3만여평의 농기계공단을 조성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삼양서비스공장만 입주 했을뿐이라는것。

이처럼 농기계공장의 입주실적이 부진한것은 金泉市가 당초 입주업체에대해 자금지원은물론 판로개척까지 협조해주기로 약속해놓고 지원을 해주지 않는데 원인이있다。

조기教育 붐일어나 유치원등 志願늘어

【永同=駐】정원미달사태를 빚었던 유치원및 유아원에조기교육붐이 일어 지원자가크게 늘고 있다。

報恩·沃川·永同등 남부지역의 경우 4개유치원이 있는 報恩읍은 2백60명모집에 2백96명이지원 평균 1·13대1、3개 유치원과 2개유아원이 있는 沃川은 2백20명모집에 2백48명이지원 평균1·12대1、2개유치원과 2개 유아원이 있는 永同읍은 2백30명모집에 3백30명이 지원 1·4대1의 경쟁률을 각각 보였다。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漢數漫畵

"내개성을 찾고싶어" "독특해 지고 싶기도 하고" "남다르게 되어보고 싶단 말이야" "그걸 누구나 하는애기야"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함께 성장합니다!

캐나다 복합문화주의는 많은 프로그램을통해, 서로 당신의 문화를 공유하고 육성하는데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캐네디안들은 서로를더욱 이해하고 바르게 인식할수 있읍니다.

함께 살며,
함께 성장하며
함께 일하는
모든 캐네디안을위한
더 밝은 미래.

복합문화주의 Canada
Multiculturalisme Canada
Canada

星武、前半종료 3分前 키퍼 키넘겨 先制득점

尹汝興수훈 外換銀 대파 4-1
商業銀도 鐵道廳에 쾌승 2-0

코리안리그 蹴球

【水原=于一平기자】星武는 5일 하오 이곳공설운동장서 벌어진 실업축구 코리안리그 이틀째 경기에서 外換銀行을 4－1로 대파, 1승을 올렸다。星武는 전반42분 尹汝興의 선제골로 어렵게 리드를 잡은후 후반서 全壽鳳(18분)과 崔景烈(20분)이 연속골을 기록, 승리를 굳혔다。

◇외로운 熱戰 관중없는 그라운드서 열린 코리안리그。星武와 外換銀行선수들이 외롭게 열전을 벌이고있다。星武가 4－1로 이겼다。【水原－崔東亮기자】

한편 4일 경기에서 商業銀行은 李芯錫과 鄭銘安의득점을 묶어 鐵道廳에 2－0으로 쾌승, 첫 승리를 올렸다。

코리안리그전에 대비하여 투지넘치는 선수들을 많이확보한 星武는 전반 막판까지 골을 넣지못해 초조한 플레이를 펼치다가 전반종료 3분전에 귀중한 한골을 넣어 게임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尹汝興은 外換수비진이 페널티 에리어정면외곽서 주춤주춤하는 사이에 날렵하게 볼을가로채 토킥, 볼은 外換GK金德吉의 키를넘겨 골인됐다。

선수스카우트 부진으로 14명의 선수만으로 이대회를맞은 外換은 주전 링커인 金南明이 경기시작6분만에 왼쪽다리를 심하게 다쳐 들것에 실려나가 더욱어려운 상황에 빠져들어 3골차로 패하고 말았다。

◇제2일전적

성무 4 (3-1, 1-0) 1 외환은행 (1승) (1패)

◇제1일 전적

상업은행 2 (0-0, 2-0) 0 철도청 (1승) (1패)

"마라톤 優秀選手 育成토록"
全대통령 江原道순시 指示

【春川＝聯合】全斗煥 대통령은 4일『江原道는 산악지방이므로 마라톤선수육성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전제하고『해발 1천m이상의 고산지대에서 현재 자라나는 중고교생중 우수선수를 뽑아 열심히 훈련을 쌓게하면 6년후 서울에서열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따내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江原도청에서 朴鍾汶지사로부터 도정브리핑을 받은후 이같이 밝히고『도지사가 책임지고 우수마라톤선수를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金煥珍 독물工作說 "터무니없는 말이다"
金트레이너

프로복싱 前WBA주니어플라이급 챔피언 金煥珍의 트레이너 金賢治씨는 지난해 12월 센다이(仙臺)서 열린 金煥珍—도까시끼 타이틀매치때 日本측에서 은밀히 약물工作을 펴 金을 지게 만들었을지 모른다는 日本의 주간 週刊文春의 폭로기사에 대해 한마디로『터무니없는 이야기다』당시 나는 金煥珍과 행동을 같이했으며 직접 백화점서 얼음과 통을 구입하여 내손으로 밀봉했다。약물중독 가능성은 상상도 할수없는 일이며 金은 실력차로 도까시끼에게 타이틀을 뺏겼다』고 말했다。

당시 金선수일행과함께 渡日했던 한국권투위원회(KBC) 金基潤국제부장도 약물공작 가능성을 부인하면서『金은 최선을 다했으나 실력이 미치지 못했다。연습부족으로 종전의 페이스를 찾지 못했던것이 결정적 패인이었다』고 밝혔다。

국내권투관계자들은 日本프로모터인 가네히라씨(金平正紀)를 거세하기위해 반대파들이 모략한것이아닌가 추측했는데 최근 日本프로복싱협회 회장단선거를 둘러싸고 가네히라계열과 그반대파들이 날카롭게 대립했던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초의 약물중독파문은 지난76년 2월 도오꾜서 열린 WBA주니어미들급 타이틀매치 柳濟斗—와지마·고이찌대전때 일어났다。와지마에게 15회 KO패당했던 柳는 귀국후『나는 약물에 중독되어 타이틀을 잃었다』고 폭탄선언, 韓日권투계에 큰 물의를빚었었다。

서울市 대표팀 2連勝
아시아都市간남자농구 홍콩에 114-62

【홍콩4日＝聯合】제1회 아시아·都市간남자농구선수권대회사흘째경기가 4일하오 8시(한국시간) 홍콩에서열려 서울시대표팀은 홍콩을 1백14－62로 꺾고 2連勝을 거뒀다。

지난달 쿠웨이트와 바레인 원정을 했던대표팀이 그대로 출전、서울대표는 이날 홍콩시대표팀을 맞아 朴守教 李忠熙(이상 현대)、曺東佑 林正明(이상 삼성)、陳孝準(복지단)을 선발로기용、속공작전과 외곽슛이 잘먹혀 들어가 전반을 66－17로 크게 앞서는등 쉽게 경기의주도권을 잡았다。

印정부·4억弗投入
亞洲경기 준비위해

【두바이4日AFP＝聯合】印度정부와 민간회사들은 오는11월19일부터 12월4일까지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제9회아시안·게임의 준비를위해 4억3천만달러의비용을투입할것이라고 4일 대회조직위원회가 밝혔다。

S·S·질조직위사무국장은 이 준비자금이 경기장의 건설및 개수와 선수촌건설등에 사용될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9회아시안·게임은 11개국으로부터 5백명의 선수가 참가했던 제1회뉴델리 아시안·게임때보다 훨씬 많은 30개국의 선수 5천명이 참가하며 또한 中共이 첫선을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83년 세계男女주니어 排球선수권大會
서울開催 돌연 流産
국제聯盟 "運營에 어려움많다" 통보

83년 서울서 열릴 예정이던 제3회 세계 남녀 주니어 배구선수권대회가 돌연 취소됐다。국제배구연맹(IVBF) 경기분과위원회(SOC)는 지난 1월말 프랑스 파리에서 분과위원회를 열고『83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키로계획했던 세계주니어 선수권대회를 85년 이후에 열기로했다』고 최근 대한 배구협회에 통보해옴으로써 서울대회는 유산되고 말았다。

SOC통보에 의하면 83년에 3회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경우 3회대회 본선과 85년 대회예선을 한해에 치러야 하므로 경기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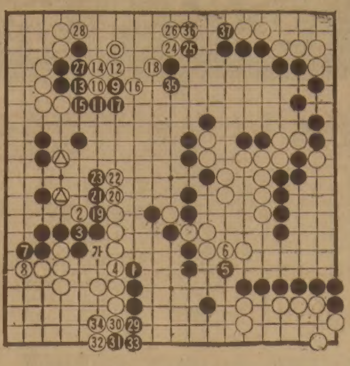
세계 주니어대회는 77년부터 81년까지 4년간격으로거행됐으나, 이후 IVBF 폴·리보회장의 제의로 83년부터 2년마다 대회를갖기로 했으며 폴·리보회장은 지난해연말 제3회대회를 서울에서개최해달라고 대한배구협회에 요청해왔었다。

3회대회 개최지와 개최시기를 둘러싸고 혼선이빚어진것은 폴·리보회장과 부회장단사이의 불화때문으로 알려졌다。

국제배구연맹 창설에 공이컸던 폴·리보회장은 규약에의해 종신회장직을 맡도록돼있으나 현재 IVBF 부회장인 아코스타(멕시코)·마에다씨(日本)등이 폴·리보회장의 독주에 강력히 반발하고있다는 것이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4局 第5譜 101～137 (각5시간 덤5집반)



白(4段)鄭壽鉉〈2勝2敗〉
黑(7段)徐奉洙〈2勝1敗〉

무서운 計家바둑

전보白100、본보◎표가 이른바 盤上最大의 곳이다。

그러나 전체형세는 黑의 추격이 눈부시어(실상은 白의 완착으로인한) 어느틈에 막상막하。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徐7단은 결코 서두르지않고 黑1에서부터 7까지 선수하더니 9。이 수는 요소였다。鄭4단은 白10으로급소를 찌르고 이하16까지 선수한 다음 白18로 뛰어 붙였다。여기까지 기세상 어쩔수 없는 과정인데 실제 소비시간은 30여분。아리송한 형세인까닭에 쌍방이 신중을 기한 것이다。

지금부터의 한수한수가 곧 승부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黑19로 째고 21、23。이것도 최대의 곳이다。앞서 △표로 가볍게 黑집을 삭감했던 점을은 그렇다하고 白2로 늘여다본 돌마저 잃어서는 白의손실이 적지 않다。진작 이렇게 알았더라면 白2는「가」의 곳에 쌍립으로 응하는 正手를 택했을 터인데、鄭4단은 공연히 큰일을 저질렀다고 국후에 대단한 뉘우침이었다。

하기야 白도 상변을 24로젖혀 26에 내려선 것이 크기만해서 그다지 치명적인 손실은 아닐것같지만 미세한 국면에서는 역시 단판두집이라도 보태주어서는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아마추어 중급이하를 위하여 한마디 진언하자면、白26에 앞서 35의 곳을 白이 단수치는 것은 악수。어차피 이곳은 黑35、白36으로 될자리이기때문이다。

黑37이 최선。이리하여 무서운 계가바둑이 되었는데 다음에 白의 선수는 어디가 적합한는지。【二凡】

스포츠短信

82년 아마野球경기 來13일 서울運개막

82년 아마추어 야구의 시즌·오픈경기가 13일 12시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열린다。상오11시 고사에 이어 12시 沖岩高—中央高, 하오 2시30분 韓國化粧品—韓電의 2게임이 벌어진다。14일부터는 서울시 고교야구춘계리그가 열린다。

漕艇協 회장金鍾澗씨選任 집행부構成

대한조정협회는 5일 金鍾澗씨(사진·성진운수대표)를 회장으로하는 새집행부를 구성하고 부활되는 해군참모총장배 대회등 82년 새해 사업계획과 1억4백여만원의 예산을 확정지었다。

조정협회는 11월 아시안게임에대비, 오는 8월 20명의 국가대표를 日本에 파견, 전지훈련을 쌓도록하며 3軍사관학교대항 조정경기 신설을 추진키로했다。

◇새집행부명단

▲회장=金鍾澗 ▲부회장=裵金淑 裵永根 ▲전무=韓英駿 ▲총무=崔仲一 ▲경기=朴信英 ▲심판=李段山 ▲국제=尹錫天 ▲시설=咸泳天 ▲이사=池德漢 韓世鉉 吳仁淑 金慶南 ▲감사=柳永源 李相于

野球人故金永祚묘비제막식

◆야구인 故金永祚씨의 1周忌를 맞아 5일상오11시金谷묘소에서 묘비제막식이 거행됐다。

아마복싱聯盟총회 회장 金昇淵씨選出

대한아마복싱연맹은 5일 대의원 총회를 열고 金昇淵씨(사진·31·한국화약회장)를 새회장으로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새집행부구성을 신임 金회장에게 위임하고 감사2명을 선출하기위해 3인 전형위원(金寅雄·都基煥·趙鍾根)을 뽑았다。

亞洲J마술대회參加 출국

◆자카르타서 열리는 아시아주니어 종합마술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한국선수단(단장 成書德)일행9명이 6일 출국한다。

日 週刊文春誌 폭로

金煥珍、독물工作 당했을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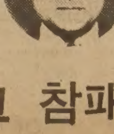
낙승 예상뒤엎고 참패

日복싱界 병폐… 世界타이틀戰서 자주사용
金龍鉉때도 코치등이 배탈騷動

日本의 文藝春秋社가 발행하는 週刊文春(3월11일자)는 81년 12월16일 日本센다이(仙臺)에서 열린 프로복싱WBA 주니어플라이급타이틀전에서 日本측이 챔피언자리를 뺏긴 金煥珍에게 독물이 든 오린지주스등을 먹여 힘을빼는 모략을 쓰려했다고 폭로했다。

金煥珍은 81년7월 大邱에서 멕시코의 페드로·플로레스로부터 챔피언 벨트를 획득했었다。

스포츠紙들은 金煥珍과 도까시끼(渡嘉敷勝男)간의 대전에 대해 金의 낙승을 예상했으나 金은어이없게 판정패했다。



◇구설수에 오른 日本의 대표적 프로모터 가네히라씨。

스포츠話題

이주간지는 金의 패인이 독약을 부입한 음식물에의한것인지 아닌지는 확실치않으나 日本복싱계에서 세계챔피언을 만들기위해 독물공작을 계속해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주간지는 日本이 낳은 20여명의 세계챔피언 가운데 구시껜등 5명의챔피언을 배출한 교에이(協榮)도장(회장 金平正紀)은 특수 독물을 상대선수에게 먹여 힘을못쓰게하는 작전을 펴왔으며 작년6월2일 고오라꾸엔(後樂園)에서열린세계타이틀도전자결정전에서도 동양챔피언인 金龍鉉에게 이숫법을쓰려다 실패했다고 밝혔다。

6월2일에 열린 金龍鉉과 日本랭킹 1위인 도까시끼와의 대전은 누가보더라도 캐리어와 펀치력에서 金의 우세가 예견됐으나 金은 정반대로 金의 판정패로 끝났다。

가네히라(金平)회장등 協榮팀은 金龍鉉이 묵고있는 고오라꾸엔 근처비지니스호텔 사또4층 408호실에 묵고있었으며 그 방은 金이묵은 405호실의 옆방이었다。

가네히라등 協榮팀은 이방에서 독물이든 겁을 만들거나 오린지주스를 만들어 金에게 먹이려 했으나 체중을 감량하려던 金이 먹지않아 실패했다고 말했다。

독물이든주스 6개중 4개를 鄭英華 트레이너와 코치등이 먹고 배탈과 설사로 고생했으며 金龍鉉이 패배한뒤 崔承哲 매니저는『協榮팀이 갖다준 오린지주스가 이상하다』고 고함을 지르는등 소란을 피웠다。

경기다음날 協榮팀은 탄로날 것이 두려워 먹지않고 남은 독물이든 2개의 주스를 새로 사온 주스와 바꿔 증거인멸을 했으며 協榮의 이같은 추잡한 음모극은 실패한 것도 있었으나 성공한 사례가 많아 日本복싱계의 왕자였던 구시껜의 챔피언극은 사실상 오욕에 찬 영광이었다고 밝혔다。【東京4日＝宋孝彬특파원】

◇작년12월16일 日本센다이에서 열렸던 金煥珍과 도까시끼간의 타이틀매치。日本의 週刊文春은 日本측에서 金煥珍에게 독물이든 오린지 주스를 먹이려했다고 폭로했다。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1:3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66-4918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30	3819 Bloor St. W.	741-5411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12: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3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대예배11:00 주일저녁예배7: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중고등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30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희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7:3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751-3611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교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일 오후6시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 7:30 일요오후 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감리교회	여웅순	주일오후 1:3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3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274-5305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T. V. 예배 8:30~9:00A. 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선교교회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성령교회	심□선	새벽예배(토,일):아침6시 금요성경공부:저녁9시 1주일오후 2:00	379 Kenneth Ave.	275-4650

여호아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illegible]및 침술.
물리치[illegible] 부인병
신경통 특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Donuts Shop에서 풀타임 오전 8 : 00~오후 4 : 30 일하실 여자분 구함. 직접내방 바람.
(영×칼레지 써브웨이 안)

Full Time일하실 여자 Cashier구함
유경험자에 한함
☎ : 598－2546(다운타운지역)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2명구함
☎368－2819 (Mr. Wong)

풀타임 여자 캐쉬어 구함
☎ : 438－1528(스카보로지역)

경험있는 여자분 캐쉬어 구함
(오후10시~아침8시)
☎ : 691－6768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실 여자분 캐쉬어 구함(12시부터 오후8시까지 근무)
다운타운지역 ☎921－0624

테크닉 사원 모집
하드 웨어에서 2년이상 경험있으신분 구함
* 급료 우대함 * Permanent Job.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608 Bloor St. W. (Bloor×Bathurst Hardware Co.)

일요일에 가게 캐셔해주실 분
유경험자 한함.(킹스톤 × 미드랜드)
☎ : 266－6355

저녁시간에 Waitress로 파트타임 일하실분은 오후 4시이후에 Nikko Garden으로 오셔서 Mr. Gus에게 문의바람(460 Dundas St. W.)

Donuts Shop(11시P·M~7A·M.)
☎ : 743－3822, 222－3877
키프링 × 알덴

3명의 아이들을 돌봐줄 하우스키퍼 구함.
베다스트와 휜치근방. 영어해야 함.
☎ : 665－4122 OR 536－7169

최석봉 씨를
양찬국씨가 찾읍니다.
샌프란시스코(미국)
☎ : 1－415－582－3124, 1－415－581－4211

매매및 양도

외국인이 경영하는 20여년의 역사를 갖고있는 기가막힌 위치에 성업중인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
☎ : 466－4091(Mr. Bert)

외국인이 경영하는 플라자에 위치한 타번(Tavern) 레스토랑 급매 주6일영업. 주류면허있음.
아스킹 : $30,000 ☎ : (B)742－0196, (R)243－8079

테이크 아웃(피쉬, 칩스, 버거스)짧은영업시간
GOOD FOR CHINESE FOOD(스카보로지역)
렌트 : $650 리스 : 11년 ☎ : (B)299－1713(R)438－9899

그로서리스토아 급매
성업중이나 부인혼자 운영이 벅찬관계로 팔고자함
년매상 : $400,000 주매상 : $7,000~$9,000
렌트 : $450(5년간)1986년까지 $500(5년간)1991년까지
(No Increase, Heating은 Rent에 포함되어있음)
영업시간 : 주당 59시간(일요일은 쉼) 다운페이 : $35,000＋스탁
☎ : (B)541－364－5267, (R)514－694－2651(Mrs. Yoo)

성업중인 수퍼마켓 매매
냉동식품, 우유제품, 그로서리, 야채류, 과일 그리고 고기(육류)등 취급.
동쪽끝 지역
☎ : 466－8283 (Mr. Mett)

외국인이 경영하는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 : 463－3893

Smoke & Gift((Bloor×Bay)
주6일경영 8 : 00AM. 6 : 30 P.M
Long Lease ☎ : 964－3749

버라이어티 & 밀크 스토아 급매.
주매상 : $3,500~$4,000
렌트 : $525 (월) 비데오 머신 있음.
아스킹 : $25,000 ＋ 스탁
관심있으신 분 연락 바람.
443 Kerr St. Oakville. ☎ : 844－6741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크리닝을 겸해 할수 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베더스트×로렌스)
오전 10시~오후 8시 ☎ : 783－0134

2베드룸 포함한 과일, 야채, 그로서리가게 매매
주매상 : $6,000 아스킹 : $49,000＋스탁
관심있으신분 아래주소로 내방바람.
143 Roncesballes Ave. (Dundas W. Subway에서 5분거리에 위치함.)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던다스×더프린)
☎ : 536－3826 7 : 00PM까지
656－4686 7 : 00PM이후

Convenience Store (900 Sq. ft.)
년매상 : $300,000 (Midland × St. Clair)
☎ : 267－8747(Tom Sherman)

외국인이 경영하는 도너츠 프렌챠이스 스토아
토론토에서 1시간거리(오샤와부근)
년매상 : 20만불이상
액셀런트 리스 (큰 파킹장 구비하고있음)
☎ : 1－885－2556(오후5시이후 연락바람)

후렌차이스 매니저 구함.
가게를 매매할 수 도 있음.
☎ : 759－9224(Ellesmere×Midland)

벡커 스토아 급매
☎ : 535－3550

과일가게에서 필요한 장비 일절 팝니다.
야채 쿨러, 밀크쿨러, 후로즌, 저울, 과일선반
☎ : 485－9419

기프트 스토아 매매
짧은시간과 권리금 없고 년매상 : $10만
Fixture＋스탁 ☎ 656-6660 12-5p.m.

고급주택, 건축용대지 2에이커(200×438)
Aurora 북쪽, Hwy 404로 30분이면 시내도착
$84,900 ☎ : 1－898－3298

"집수리 일체"시설및 수리(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 : 425－8585

기관및단체

- 총 영 사 관 : 598－4608
- 한 인 회 : 755－9288
- 노 년 회 : 755－8079
- 실업인협회 : 752－7771
- Y M C A : 536－1166
- 외 환 은 행 : 364－2890
- 한 일 은 행 : 865－0456
- 무역진흥공사 : 977－8784
- K A L : 862－8250

하우스 렌트

방세놓음(월 : $170 독신자원함)
Pape Subway 에서 1블락거리
☎ : 282－0236, 466－3764

도서판매

한국전집 (수입품)
광복20년(전25권), 한국인물사(전10권)삼국지(전6권)
한국의 가정요리(4권), 새생활백과(전8권),
가정종합병원, 대 한한사전, 토지(전6권)등
☎ : 690－2216 Mr. 최규홀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식품점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 274－5401

고려식품 680 Bloor St. W. Tor.
* 주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 : 531－2242

동양식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삼 복 식 품 ☎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주7일영업, 배달합니다.

제 일 식 품 (구 단풍식품)
-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 배달합니다.
-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 field Rd.
☎ : 743－827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 (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킬×던다스)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사 진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촬영
●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438－4435
●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새 한 칼 라 현 상 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시설및 수리

신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 270－3118 오현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마스타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식 당

Choi's Restaurant
- 메뉴 :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 시간 :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새벽2시
- 주소 : 2432 Eglinton Av. E. Scarboro(at Kennedy)

☎ :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 영업시간 : 월~일요일 까지 : 낮12시~새벽 1 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 :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 : 536－8666

동 궁 (홍콩식 중화요리 전문)
영업시간 월~금 오전11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토 오후 4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일 오후 4시30분부터~ 밤10시까지
1416 VICTORIA PARK AV. (South of Eglinton) 757－6334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 : 532－0602

클링턴하우스
693 Bloor St. W.
☎ : 535－9541 김 영규

거 구 장
5 Bethridge Rd.
☎ : 742－1618

악 기 점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Tor. Ont. M5A 1A1
☎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 히팅· 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 : 221－5441
(냉동기 시설및 수리) 미스타 이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매매 부동산

A. E. LEPAGE (우덕이)
☎ : 741－9170

CANADA PERMANENT (황순일)
☎ : 481－3443

이대환 부동산 ☎ : 535－1251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성

황용현 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 : 361－0880

ROYAL TRUST (유복영)
☎ : 762－8255 West 지역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 한국일보 안내광고 ＊

LISBON AUTO COLLISION INC.
●토잉써비스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 654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캐나다 외환은행
☎ : 364 : 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 1140
(KING × YORK)

자동차수리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532－3946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번 달 원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전기덕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이락, 김한호
☎ : (B) 532－0200, (R) 533－2157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O.K. 오토바디
☎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꽃집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용)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꽃 집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2, 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자동차 매매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North York Chev. 김 병 권
7200 Yonge St. Thornhill
☎ : 881－5000

소 독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장의사

장 의 사 (R.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카펫・카텐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판 현

보 험

Sun Life (윤 호 영) ☎922－3111

Sun Life (백 용 빈) ☎497－3800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김 종 조 종합보험, ☎537－7200

임페리알 Life (김 흥 량) ☎482－0166

불 교

선 련 사 ☎ : 532－3491
46 Gwynne Ave.

불 광 사 ☎ : 223－9152
288 Hownslow Ave.

대 각 사 ☎ : 463－8998
11 Dawson Ave. Tor. Ont.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535－2143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빅・세븐
678 Bloor St. W. ☎530－0523

Mister Oh for Men
☎ : 964－2606, 869－0589, 275－2187

치 과

Dr. Mark Kochman ☎ : 233－9454
(월, 토)9 : 00A.M～6 : 00P.M. (목)9 : 00A.M～9 : 00P.M. 3101 Bloor St. W. Ste. 203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신용조합

천주교회 신용조합
941 DUNDAS ST. W. TOR. ONT. M6J 1W4
☎ : 363－0097

한 인 신 용 조 합
641A Bloor St. W. (2nd Fl.) Tor. Ont. M6G 1L1
☎ : 533－9387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이 경 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 : 766－5639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 : 278－7300 MISSISS.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칠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Chung's Accounting 정 필 주
* Tax Return, Planning
전 C.A. Firm Accountant ☎ : 661－1819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960－0074

Y 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267－2292

쇼햄한글학교
☎663－1178

김용순 무용연구소
☎924－3905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스포츠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요일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 : 298－3584

약 국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 : 368－2746
조 남 오

번역및통역

번역 CHARLES YU(유죄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281－1677 이영화(전 대학강사)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퐁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신비의 생 약 "알로베라" 판매 정 효 기
가정 상비약으로 필수
4020 Dundas St. W. ☎ : 248－1362(R), 769－4347(B)

인 쇄

윌슨인쇄소 ☎ : 638－6919 임 윤 식
904 Wilson Ave. Downs view, Ont. M3K 1E7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746－0675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주보 ・명함 ・청첩장 ・식자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493－8894, 윤 종 대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 : 535－3520 곽 호 중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창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미 용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 : 248－2957(B)
247－6875(R)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 렌 미 용 실 김 조 자
377 Albion Rd. 한국식품 서부지점에서 동쪽에 위치
☎ : 741－7829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 × Albion)
☎ : 742－1205(B), 745－1632(R) Mr. 마

流星의 人賊 <325>

李炳注 作
李友範 畵

虛實의 時間 ㉙

『너는 군관이 할 일은 빨리 [illegible]것이니라. 빨리 서울로 가거라. 그곳에 가서 정세를 본 연후에 돌아와도 늦지 않다. 빨리 서울로 가라』

아버지의 명령은 귀중하다.

계남은 해가 이미 서산에 기울어든 것을 보고 다시 서울을 향해 떠났다.

마음을 먹으면 계남의 걸음은 나는듯 했다. 백리 길을 수각(數刻)으로 줄여 부한(?)지전에 동대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미 난리의 소식이 전해진 탓일 것이다. 성안이 술렁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듯 했다. 계남은 달음질을 쳐서 이영(李英)의 대문을 두드렸다.

『흥공이 올 줄 알았어』

이영은 계남을 맞아들이곤

『천하의 대란(大亂)을 어떻게 수습해야 좋을지』

하고 장탄식을 했다.

그리고 물었다.

『흥공 흥공이 나라의 군략(軍略)을 도맡아 지휘한다고 할 때 어떤 계략으로 대처할 것인가』

계남은 서울을 향해 올라오는 도중 생각했던바를 피력했다.

『첫째, 왜군이 진로(進路)로서 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방의 수령들에게 명령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소장한 양곡과 더불어 심산(深山)으로 피하게 하고 장정만을 남기되 그 장정들로 군에 합류시켜 싸우게 합니다. 둘째, 수성전(守城戰)을 포기하고 험난한 요지요소(要地要所)에 군사를 매복(埋伏)하여 기습작전을 합니다』

하고 계남은 영남에서 서울로 오는 도중에 있는 요소를 열거하여 매복의 장소로 하겠다고 했다.

『수성전(守城戰)을 하면 싸움에 익숙한 놈들의 기세를 꺾기란 지극히 곤란합니다. 철저한 매복전 기습전으로 할수 밖에 없읍니다. 매복지점 백개소를 골라 하나의 매복지에서 적세 백분의 일을 꺾을수 있다면 백개소를 적군이 지날땐 무일병(無一兵)이 될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선 백성 전부가 호응해야 합니다. 각지에 정탐꾼이 잠복하고 있어 놈들의 진로를 재빨리 알리면 그 연락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우리의 동태는 그들이 모르고 그들의 동태는 우리가 환히 알수 있을것인즉 백전백승은 명백합니다. 단 전투기술이 미숙해서 고전(苦戰)할 경우는 있겠지요. 그러나 훌륭한 지휘자를 얻어 전퇴를 신속하게 하면 충분히 대적할 수가 있읍니다』

이어 계남은 전국의 지도를 눈 앞에 그리듯 하며 매복전 기습전등 유격전술(遊擊戰術)을 피력하는데 이영은 감탄했다.

『흥공이 전군을 장악하여 용병(用兵)을 전담할 수만 있다면…』

하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

하지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위계질서의 면에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계남의 전술이 그냥 채택될 까닭도 없는 것이다.

『백의 요지(要地)에서 각각 상대방의 병력 백분의 일을 감한다면 백전을 겪는 동안 적은 무일병으로 된다는 전략은 훌륭하다. 병서(兵書)에 기록할 만한 전술이군』

이영은 새삼스럽게 흥계남을 우러러 보는 마음으로 되었다.

海外걸작漫畵

『이차림이 내 근무복이지, 아동심리학자거든』
"These are my work clothes…I'm a child psychologist!"

2ND CLASS MAIL NO. 5248